



2023 06 VOL. 196

인간화 + 오너쉽

2023 06 VOL. 196



강동구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자 녹음이 우거진 일자산에서 제95회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열린다. 별도의 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햇빛이광장과 캠핑장을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오후 5시 30분에 개회식을 개최하며, 선물 추천도 마련돼 있다.



노원구
208석 규모의 오직 어린이를 위한 극장인 노원어린이극장에서 6월 24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콘서트 <세비야의 이발사>가 열린다. 귀족 중심 사회를 풍자하는 유쾌한 로맨스 코미디로, 세계에서 사랑받는 희극 오페라다. 오페라 전문 이야기꾼이 함께해 오페라를 처음 만나는 관객도 공연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 소식

양천구
평소 시간 제약과 연령, 장애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공원을 즐기기가 어려웠던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양천구 내 숲 자원을 활용한 공원문화 프로그램 '들썩들썩 양천인더숲'이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신 안정 프로그램이 열리며, 토요일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일요일에는 용왕산근린공원에서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나무 지도를 활용한 미션 수행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도봉구
전차의 진격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인 대전차 방호시설에서 공간 재생 사업을 거쳐 문화 창작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 평화문화진지과 도봉구 내 전통 시장에서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6월 8일 백운시장을 시작으로, 9일 도개비시장, 10일 평화문화진지, 16일 신창시장, 17일 창동골목시장으로 이어지며, 모두를 즐겁게 할 공연과 친환형 예술 체험, 어린이 예술 워크숍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진구
광진구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토요역사여행'을 운영한다. 6월 10일(3회차) 주제는 '뱃길의 역사'로, 김포와 인천을 찾아 세금을 옮기던 뱃길의 중요성과 운하 개발의 역사를 들어본다. 17일(4회차) 주제는 '안보 역사'. 철원으로 이동해 고석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쟁사와 분단국가의 안보 역사를 탐구한다. 참가비는 8천 원이며,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용산구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용산구민 혹은 용산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스튜디오 '옹쌌네 촬영실'이 문을 열었다. 용산구청 지하 3층에 위치한 이곳은 영상과 사진 촬영을 위한 멀티비전·크로마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1회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2시간 기준 2만 2,500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원하는 날짜를 살펴볼 수 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를 활용해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 문화공간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매우 특별하게, 열망적인> 전시를 연다. 폭넓은 표현 방식이 가능한 재료인 점토에 관한 매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해방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는 6월 23일까지.

공연



연극 <20세기 블루스>
극작가 수전 밀러가 60대 여성 네 사람을 통해 나이 든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 작품 <20세기 블루스>가 부새롬 연출의 손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2016년 초연 당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을 어떻게 다들 들지 기대해보자. **6월 17일까지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02.708.5001**



연극 <회란기>
월간 『한국연극』 '2022 공연 베스트 7' 선정작!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연극 <회란기>(원작 이집부, 번역 문성재, 각색·연출 고선웅)가 금나래아트홀에서 선보인다. 극공작소 미방진과 연출가 고선웅의 완벽한 앙상블, 명불허전 배우 박상원(포대제 역)이 참여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장해당 역에 이서현, 마부인 역에 박주연 배우가 무대에 오른다. **6월 2일과 3일 | 금나래아트홀 | 02.2627.2990**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 우리 고유의 언어와 소리로 새롭게 탄생한다. 인간을 탐구하는 연출가 이성열이 키를 잡고, 변인과 각색에 능한 작가 김은성이 창작 대본을 썼다. 국립창극단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한승석이 작창을, 대중상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거두 받은 원일이 작곡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원작에 스며 있는 지난 시대와 편견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사랑과 정의, 자비와 우정 등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원작 제목에 복수형을 붙여 젊은 상인들이 살아가는 진취적인 모습에 주목하고자 했다. 국립창극단 대표 스타 유태평양과 김준수가 각각 안토니오와 샤릴록 역을 맡았다. **6월 8일부터 11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4**

뮤지컬 콘서트 <나루 뮤지컬 나잇>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 뛰어난 무대 매너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뮤지컬 배우 카이, 정선아와 실력파 뮤지컬 배우 이정화, 신예 노윤이 민화란 음악감독이 이끄는 뮤직할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통해 국내외 유명 뮤지컬 넘버를 한자리에서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6월 24일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02.2049.4700**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
마포문화재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로 피아니스트 김도현을 선정, 첫 번째 연주회를 마련했다. 2021년 부스니 콩쿠르에서 박재홍과 나란히 입상자에 이름을 올린 그는 금호라이징스타로 선정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벨 소품, 그리고 베토벤의 소나타를 선보인다. **6월 13일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02.3274.8600**

전시



〈게임사회〉
 비디오 게임이 세상에 등장한 지 50년, '게임과 사회'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미술관에 등장했다. 이번 전시는 오늘날 게임의 문법과 미학이 동시대 예술과 시각 문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것을 제안한다. 게임은 미술관에서 어떤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2010년대 초반 뉴욕현대미술관과 스미소니언미술관이 수집한 비디오 게임 소장품, 국내 게임 등 9점과 비디오 게임의 문법과 미학에 영향을 주고받은 현대미술 작가 8명의 작품 30여 점 등 총 40여 점을 소개한다.
9월 10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국립현대미술관

축제/행사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NONHUMAN

2023 서울국제도서전
 우리나라를 포함해 31개국 481개 출판사, 200여 명 작가가 참여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비인간'을 이곳에 초대했다. 인간 중심의 관점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시도하고 새로운 인간중심주의에 도전한다.
 또한 도서전의 얼굴이 될 여성 6명(천선란·편혜영·오정희·김인숙·김애란·최은영)을 담은 포스터를 내놓았다. 올해 주빈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토후국 중 하나인 사르자이며, 당국의 100여 명 작가와 출판 관계자가 아랍의 문화와 책을 선보인다. 더불어 수교 60주년을 맞은 캐나다를 '스포트라이트 컨트리'로 조명한다. 『파이 이야기』로 2002년 부커상을 수상한 안마텔의 강연도 준비됐다. 주제전시에서는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를 키워드로 선정한 도서 600권을 만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에 선정된 10종을 전시실 한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별전시 '기후미식' 코너에선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을 제안한다. 세부 프로그램과 티켓 구매는 서울국제도서전 누리집에서.

서울국제도서전

〈이화, 1970, 정미조〉
 가수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정미조가 졸업 51년 만에 모교에서 전시를 선보인다. 1972년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학과를 졸업한 그는 그해 '개여울'을 부르며 데뷔했다. 인기 절정이던 1979년 돌연 가요계를 은퇴하고 자신의 꿈을 좇아 파리로 유학을 떠난 그는 이후 화가이자 대학교수로 활동하다 2016년 가요계로 복귀했다. 이번 전시는 정미조의 미술 작품과 음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다. 유학 시절 그린 〈파리풍경〉을 비롯해 귀국 후 도시 풍경을 담은 '서울 야경' 시리즈, 자화상, 인물화, 드로잉 등을 선보이며, 1970년대 활동 사진과 무대 의상도 함께 전시한다.
10월 31일까지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02.3277.3152



유성기집, 소리를 보다
 2023.5.26-6.30

〈유성기집, 소리를 보다〉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활동하는 이름지기와 국립국악원이 협력해 유성기와 유성기음반, 그 시절 소리를 반추하는 전시를 연다. 콜롬비아·빅타·시에론·오케 등 20세기 초반 음반사의 명반과 명연주, 복각된 우리 소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
6월 30일까지 | 아름지기통의동사육 | 02.580.3375



〈백희나 그림책〉
 2003년 출간돼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구름방』의 주인공 백희나 작가의 첫 단독 개인전이 열린다. 『달 사베트』, 『장수랑 선녀님』, 『알사탕』 등 그간 내놓은 작품의 원화와 입체 모형 등을 선보여 그림책 속 캐릭터와 공간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6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02.580.1300

EWHA, 1970, JEONG MIJO

이화, 1970, 정미조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특별전
 Ewha Womens University
 137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제13회 대한민국발레축제
 2011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대한민국발레축제가 올해 13회를 맞아 '발레에서 시대를 마주하다'라는 주제 아래 6월 8일 개막한다. 지난 10여 년간 148편 작품, 197회 공연, 누적 14만 명 관객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발레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올해는 2개 단체의 초청공연과 기획공연, 공모를 거쳐 선정된 8개 단체의 작품이 준비됐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를 시작으로, CJ토월극장에서는 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10일과 11일), 윤전일 Dance Emotion 〈첫 번째 게임 Uno, Dos, Tres, Cuatro〉(10일과 11일), 기획공연 〈발레 오딧세이〉(16일과 17일), 광주시립발레단 〈돈키호테〉(24일과 25일)가 펼쳐진다.
 자유소극장에서 좀 더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색깔의 작품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 8일과 9일 유희웅리버티홀 〈커틀콜〉과 NXXT FLOOR 〈그해 6월〉, 13일과 14일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COMBINATION 2.0〉과 유미크댄스 〈Edge, New Dawn〉, 17일과 18일 양영은 Beyoun Ballet 〈소나기〉와 원혜인 Ballet Project 〈Writer & Speaker II〉가 공연된다. 자유소극장 공연에는 첫 회 공연 종료 후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대한민국발레축제

온라인 콘텐츠

김수현의 커튼콜
 김수현 SBS 문화전문기자는 2010년 『나도 가끔은 커튼콜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문화부 기자로 현장에서 만난 감동적인 공연과 예술가들에 대한 생생한 취재기를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이제 그의 '커튼콜'은 텍스트에서 오디오로, 영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4년 넘게 이어지며 어느덧 SBS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은 팟캐스트 '김수현의 커튼콜' 이야기다. 방송이나 기사에 미처 나가지 못한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남는다. 마치 공연장 뒤편에서 만나 후일담을 들듯 편안하게 진행되는 이야기에, 종종 예술가들의 앙코르 같은 귀한 장면도 담긴다. 공연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클릭 한 번이면 만날 수 있다.



제5회 VH 어워드
 미디어아트 분야 아시아 차세대 예술가를 선발해 지원하는 현대차그룹 'VH 어워드'가 최근 다섯 번째 수상자를 발표했다. 2016년 시작된 VH 어워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진 미디어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이번 시상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시실 구성을 본뜬 누리집에 접속하면 최종 후보로 오른 작가 5명의 작품과 일련의 제작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 <가곡원류, 가곡에 담긴 노래의 미학>
 국립국악원은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가곡원류」를 온라인 전시로 공개했다. 조선 시대 가객 박효관과 안민영이 편찬한 악보로, 「청구영원」, 「해동가요」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가시집으로 손꼽힌다. 「가곡원류」에는 남창 30곡 665수, 여창 20곡 191수가 기록돼 있다.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누리집과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통해 공개한 온라인 전시에는 고해상도로 촬영한 원문 이미지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고, 일부 공연 영상을 연결해 악보와 연주를 동시에 감상하게 했다. 또한 국문과 영문 모두 서비스돼 누구나 우리 문화유산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Scene Focus Associated Column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02 서울시 자치구 소식
 03 공연
 04 전시
 05 축제/행사
 06 온라인 콘텐츠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과 만나는 브레이킹의 세계
 10 타임라인 한계를 부수고 지평을 넓혀온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10년의 기록
 12 레퍼토리 한 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레퍼토리
 22 칼럼 팔을 다리처럼, 다리를 팔처럼 브레이킹, 예술의 경계에서
 23 칼럼 혁신의 핵심은 창의성 현대 스포츠가 된 브레이크댄스
 24 프리뷰 노들섬으로 떠나는 'B강스' 2023 서울비보이페스티벌

28 예술가의 진심 김은성의 조명은 낮은 곳을 향해
 34 페이퍼로그 청년으로서, 청년을 위해 청년예술팀 운동주
 36 문화+후원 치유와 긍정의 예술 메신저 올림푸스한국-서울문화재단 함께한 10년
 38 인사이트 '무'와 '무한'이 만나 펼쳐는 난장 퀴드 초이스-서도와은미
 41 인사이트 모두가 예술과 손잡고,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
 42 예술단체 아카이브 더블데크웍스 아트컴퍼니나우
 44 트렌드 달라진 위상과 시대 변화, 세계 음악축제의 얼굴이 된 K-팝
 46 트렌드 확장하는 공연장 지도, 모두를 위한 공간 되려면
 48 해외는 지금 영화제는 어떻게 칸의 상징이 되었나

54 삶의 책장을 넘기며 2.5cm 세계
 56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침묵의 화가 윤형근
 57 동시대적 고전 읽기 고전을 고쳐 쓰는 소녀들
 59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물입을 이끄는 '세계들'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과 만나는
브레이킹의 세계

2013년 시작을 알린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은 시민 곁에서 생동하는 문화로, 해외 무대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시초로 활약해왔다. 올여름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서울비보이페스티벌에 앞서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 걸어온 길을 따라 브레이킹의 세계로 안내한다.
2014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펼친 캬블러크루

한계를 부수고 지평을 넓혀온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10년의 기록

도시의 거리마다 문화가 깃든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서울문화재단이 비보이 크루와 함께 걷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간의 행적을 한눈에 정리했다.

‘비보잉’이라는, 생소하게 느껴지던 단어가 자주 들려오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다.

국내 비보이 크루와 댄서들이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BOTY)를 비롯한 국제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린 것. 한국의 비보이·비걸이 연거푸 낭보를 가져오니 2000년대 후반 들어 관심은 더욱 확산하고, 각종 기업 마케팅에 비보이 크루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브레이킹 문화가 퍼져나가니 각종 공연과 방송에서 쉽게 브레이킹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때만 해도 한류 대표 콘텐츠라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인기는 금세 사그라지면서 국내 비보이 크루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자랑하며 실력을 인정받는 한편, 국내 활동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현실에 다다랐다. 이로써 서울문화재단은 브레이킹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여가를 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을 선정,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브레이킹 댄서들이 지속해 활동할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브레이킹 문화를 확산해 문화도시 서울에 기여하고자 한 것.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은 문화사절단으로 나서 국내외 문화 교류 현장을 빛냈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협업해 작품을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점차 자생력을 키워갔다. 이제 브레이크댄스는 그저 스트리트 문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자리하고 있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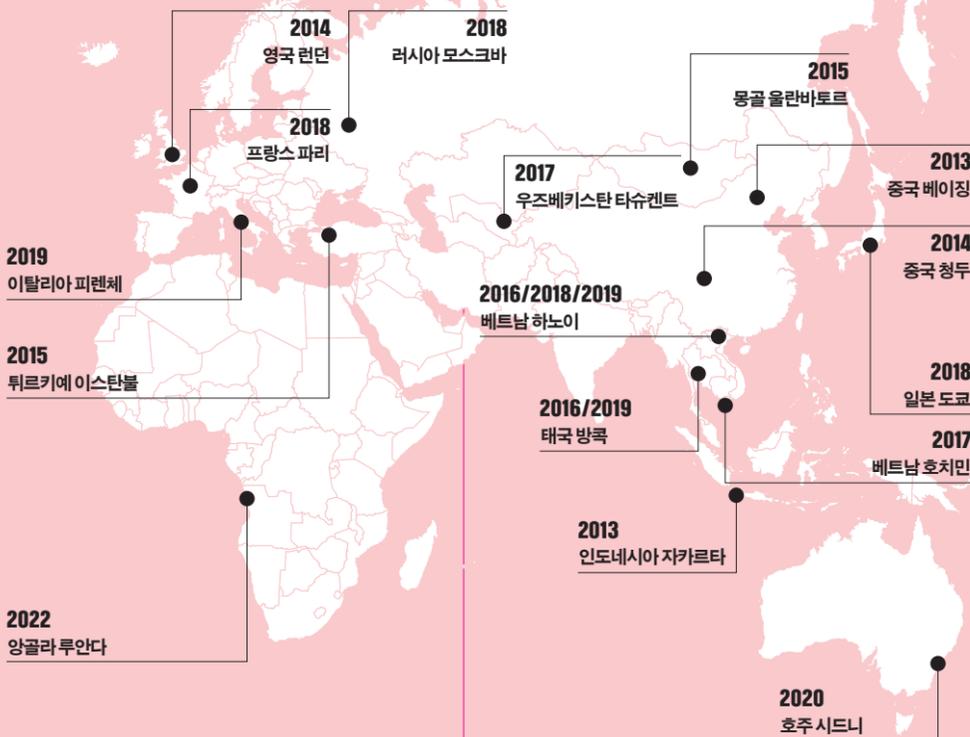
첫 번째 ‘비보이단’이 탄생하다

2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발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선정됐다. 곧바로 4월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연말까지 국내외 곳곳에서 52회 공연이 진행됐고, 비보이 예술놀이교육이 시범으로 운영됐다.

2014

본격 활동의 시작

첫 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갬블러크루와 2015년까지 활동 연장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시범으로 운영된 청소년 대상 비보이 예술놀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본격으로 진행돼 38회 교육이 이뤄졌다.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축제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City of London Festival)은 그해 축제 테마를 ‘서울 인 더 시티(Seoul in the City)’로 정했고, 갬블러크루는 6월 30일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 앞 무대에 올라 ‘다이너믹 코리아(Dynamic Korea)’를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이외에 축제 기간 중 총 다섯 번의 공연을 소화했다. 작품 제작을 위한 창작 워크숍도 처음 열려 안무가 김실진과 갬블러크루의 만남이 이뤄졌다.



2015

확장하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로서 시내 곳곳에서 연간 공연이 가능한 크루를 찾는 공모를 내걸었다.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듯 여섯 팀이 서류 심사를 통과해 공연 심사에 응했고, 드리프트크루가 최종 선정됐다.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이 해에는 터춤패감 갬블러크루와 신홍강자 드리프트크루가 함께 도시를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로 무대에 올랐다. 갬블러크루는 안무가 김실진과 완성한 신작 〈신포니아〉를 9월 서울무도회에서 시연하고 10월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공식 발표했다. 일 년간 전체 89회 공연을 통해 관객객 3만 8천여 명이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과 만났다.



2016

도시 어디서나 브레이킹!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 정례로 공연할 수 있는 비보이 배틀 전용 무대인 ‘서울시 대표 비보이 존’을 조성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드리프트크루만 아니라 다양한 비보이 크루가 돌아가며 이 무대를 장식해 시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브레이킹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는 타악 듀오인 피브로듀오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렸다.



2017

양적 확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신규 공모를 통해 재선정된 갬블러크루와 드리프트크루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함께 활동했다. 거리예술가 이철성, 안무가 안은미·류장현과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11회 진행됐고, 10월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안무가 류장현과 드리프트크루가 공동 제작한 〈들리는 몸〉이 초연됐다.



이동 거리 175,490km 지구 둘레 4.4바퀴

2018

4만 9천 관객과 소통하다

그간 꾸준히 진행된 비보이 예술놀이교육 ‘프리즌브레이크(FREEZENBREAK)’의 성과를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안무가 김보람·안은미·류장현이 창작 워크숍에 참여했고, 류장현이 연출한 갬블러크루의 신작 〈필드 홀러〉를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선보였다. 베트남 하노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뉴질랜드 웰링턴, 러시아 모스크바 등 도시에서 해외 공연도 활발히 이뤄졌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도 탄생했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2013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발전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최종 선발됐다. 2014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10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보이 배틀’이 열렸고, 갬블러크루와 고스트크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9

하나의 장르가 되다

갬블러크루와 새롭게 선발된 엠비크루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일 년간 72회 공연을 진행했고, 갬블러크루가 단독으로 제작한 신작 〈지금이면:裏面〉이 베일을 벗었다. 비보이 예술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사 과정 워크숍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을 고안·운영했다.



2020-2021

잠시 거리를 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 횟수는 예년 대비 8% 수준으로 줄었지만, 엠비크루는 안무가 김재덕과 호흡을 맞춰가며 창작 워크숍을 지속했다. 2020년 10월 백암아트홀에서 신작 〈마당〉을 발표했고, 2021년 11월에는 이를 재구성한 작품 〈마당-인터랙션〉을 백지장 서대문 대중인쇄에서 공연했다. 스트리트 문화에서 연상하듯 잘 꾸러진 무대가 아니라 춤을 추기 쉽지 않은 일상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 오브제를 활용해 발전시킨 작품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연장에서 만날 수 없는 관객을 떠올리며 댄스필름을 제작하기도 했다.



2022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지난해에는 불과 1회밖에 공연을 열지 못했지만, 2022년 들어 서서히 회복을 준비했다. 일 년간 54명까지 줄어들었던 공연 관람 인원은 1만 명까지 회복했고, 해외 공연도 재개했다. 2년여에 걸쳐 꾸준히 발전시킨 안무가 김재덕과 엠비크루의 공동 창작 작품은 12월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페스티벌에서 〈마당-Pull in〉으로 공연됐다. 또한 기존 공모 형식으로 운영되던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발 과정에 변화가 생겼다. 예선을 통과한 비보이 크루가 서울비보이페스티벌에서 공개 퍼포먼스 경연을 펼쳐 시민과 전문가의 선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9월 열린 축제 선발전에 엠비크루·갬블러크루·소울번즈가 배틀을 벌였고, 갬블러크루가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레퍼토리

장르 선입견을 뛰어넘어
고유한 레퍼토리를 만들고,
독립된 예술 장르로 굳건하게
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제작한 작품 6편과
2023년 신작을 소개한다.



〈신포니아〉
연출 김철진
안무 김철진, 캠퍼러크루
출연 박지운, 신규상, 홍성식, 장수용, 김기수, 최동욱, 임석용, 박인수(캠퍼러크루)
초연 2015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 처음 창작을 시도한 작품으로, 캠퍼러크루와 안무가 김철진이 함께했다.
대중에게 익숙한 클래식 음악인 비발디 '사계'를 비보이 무대로 시각화했으며, 서로 다른 댄스
스타일이 어울리기보다는 댄서들의 움직임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한 점이 독특하다. 클래식 음악과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로부터 새로운 시각과 발상을 탐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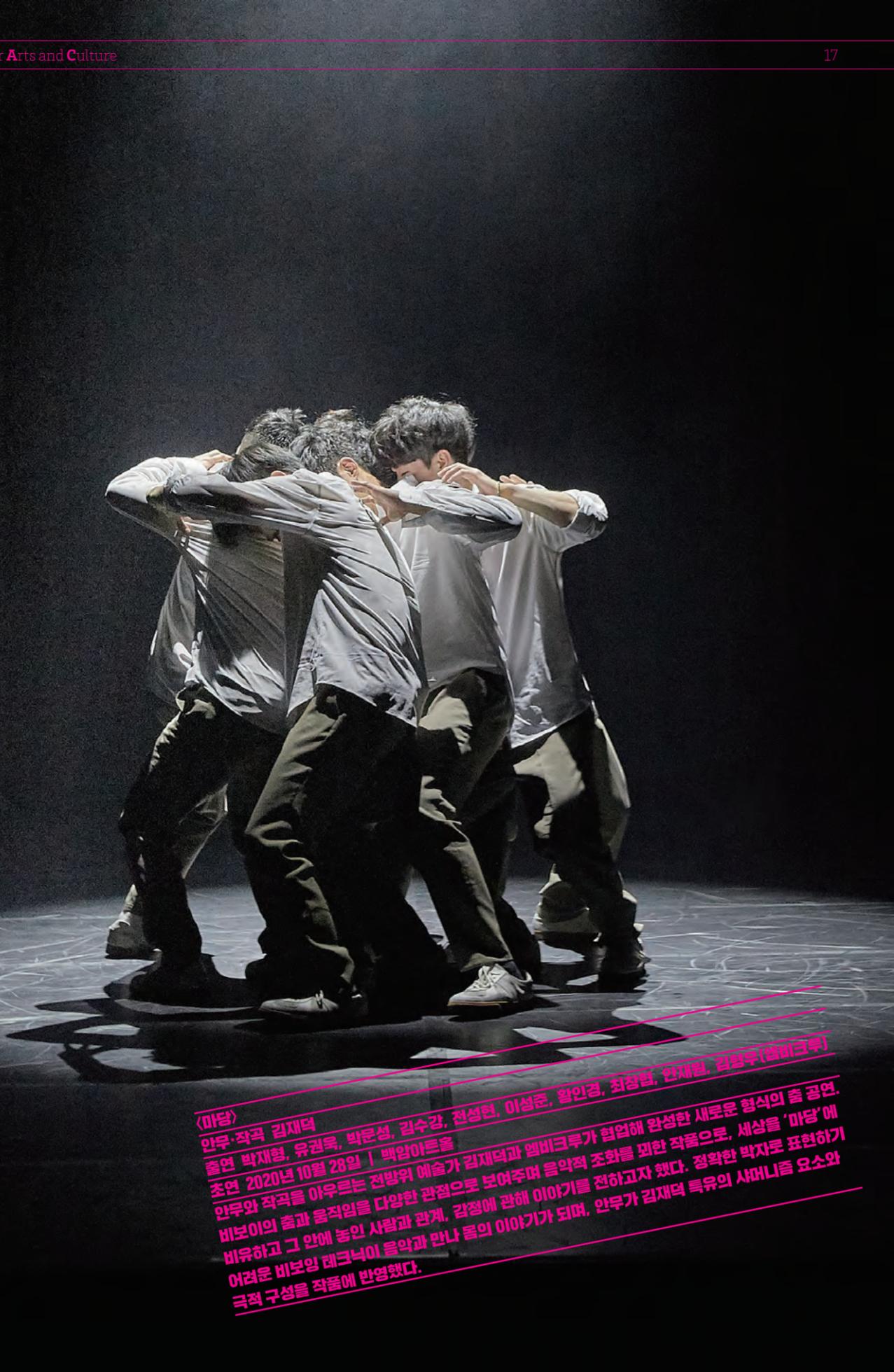
<들리는 몸>
 협력연출 류장현
 출연 김덕현, 신종훈, 신광현, 손문, 임준배, 연철민, 박원빈, 신윤호, 염정철, 한상호, 임한진,
 장성우, 강유성(드리프터즈크루)
 연주 송재영, 최규철
 초연 2017년 10월 5일과 6일 | 서울거리예술축제
 우리의 몸은 리듬을 갖고 살아간다. 심장 박동에서 시작된 태초의 리듬은 인간을 숨 쉬고 춤추게
 한다. 가장 원초적인 소리아자 리듬의 변주가 가능한 드럼을 활용해 음악을 만들고, 때때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와 소음을 공연의 리듬으로 들려줬다. 비보이가 가진 역동성이
 음악과 어우러져 다이내믹한 작품을 완성했다.



<필드 홀러>
 연출 류장현
 출연 박지훈, 신규상, 장수용, 홍성식, 성승용, 손석경, 박인우(랩블러크루)
 초연 2018년 10월 5일과 6일 | 서울거리예술축제
 흑인 노예의 외침을 의미하는 '필드 홀러(Field Holler)'를 작품 제목으로 내세워 '블판에서의
 절규'를 보여주려 했다. 재즈·블루스·가스펠의 부리이기도 한 노예들의 소리를 통해, 현대판
 식민지의 치부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현대인 모두에게 있다고 봤다. 배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비보잉 문화는 마치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현장을 연상하게 한다. 이들의 '필드 홀러', 즉
 젊은이들의 피말 어린 파열음이 광장의 소리처럼 저 멀리 퍼져나간다.



〈지금이면·裏面〉
 기획 이준학
 운영 김지환, 오영호
 연출·재구성 박지훈, 장수용, 홍성식
 공동 창작·출연 박지훈, 장수용, 홍성식
 이규진(겔블러크루)
 초연 2019년 10월 3일과 4일 | 서울거리예술축제
 앞선 겔블러크루의 두 작품처럼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한 것이 아니라 단독 제작으로 선보였다.
 오랜 시간 비보이와 비컴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작품에 여과 없이 표현한 것. 이를 통해
 겔블러크루를 이루는 개개인 댄서의 고유한 색깔을 충분히 드러내고자 했다.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비보잉 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 속 어려움을 무대 위에 투영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돌니버스 형식으로 엮었다.



〈마당〉
 안무·작곡 김재덕
 출연 박재형, 유권욱, 박문성, 김수강, 전성현, 이성준, 황인경, 최창협, 안재림, 김형우(엠비크루)
 초연 2020년 10월 28일 | 백암아트홀
 안무와 작곡을 아우르는 전방위 예술가 김재덕과 엠비크루가 협업해 완성한 새로운 형식의 춤 공연.
 비보이의 춤과 움직임의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며 음악적 조화를 꾀한 작품으로, 세상을 '마당'에
 비유하고 그 안에 놓인 사람과 관계, 감정에 관해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 정확한 박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보잉 테크닉이 음악과 만나 춤의 이야기가 되며, 안무가 김재덕 특유의 새머니즘 요소와
 극적 구성을 작품에 반영했다.



〈마당-인리백선〉
 안무 김재덕
 출연 박재형, 유권욱, 박문성, 이성준, 전성현, 황인경(엠비크루)
 김재덕과 엠비크루가 협업해 2020년 초연한 작품 〈마당〉을 재구성해 〈마당-인리백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표했다. 초연이 이뤄진 공간은 오래된 폐공장으로, 댄서들은 춤을 추기
 쉽지 않은 바닥과 공간 안에서 남은 오브제와 벽을 활용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컨템퍼러리
 브레이킹(contemporary breaking)'을 표방하며, 공간이 자아내는 힘과 댄서의 움직임, 날갯
 소리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호소한다.

〈얼수, 얼쓰〉

안무 지경민, 임진호

음악 퀵스타

출연 박지훈, 홍성식, 김응혁, 최찬배, 성승용(갬블러크루)

임성은, 이경구, 이연주, 박소진, 김민주(고블린파티)

초연 2023년 6월 30일과 7월 1일 | 대학로극장 퀴드

주제를 탐구하는 진지함과 재치 넘치는 유머 감각으로 주목받는 고블린파티와 갬블러크루가 공동
 창작한 작품. 세계 각국의 춤에서 영감을 찾아 무대 위에 펼쳐보고자 했다. 오히려 브레이킹 기술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여기고, 레크니보다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퍼포먼스 사이사이 렉처 형식을 배치해 새롭게 다가가고자 했다.





고블린파티와 갬블러크루에게 듣는 신작 〈얼쑤, 얼쓰〉

갬블러크루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여러 해 많은 창작자와 협업을 이뤄왔는데요. 고블린파티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갬블러크루 일전에 김설진·류장현 안무가와 함께했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현대무용 장르 안에서도 안무가마다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움직임을 추구한다는 걸 느꼈어요. 고블린파티와의 협업은 또 다른 움직임을 알게 되는 즐거운 경험이었죠. 게다가 팀의 분위기가 언제나 밝고 쾌활해서, 상대적으로 갬블러크루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각자가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다르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작업에서 충돌하는 일을 자주 봐왔는데, 놀랍게도 이번 협업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오히려 작업이 힘들수록 고블린파티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배려가 크게 발휘돼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르의 단체와 다채롭게 협업하는 고블린파티에게도 비보이 크루와의 협업은 처음이었어요. 갬블러크루를 만난 소감은 어떤가요?

고블린파티 며칠 전 갬블러크루에서 티셔츠를 선물로 주셨어요.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갬블러크루’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내 모습에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저(지경민) 역시 비보이단으로 처음 춤을 시작했거든요. 갬블러크루의 명성은 그때부터 자자했죠. 어린 시절 동경하던 단체의 작품 안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번 작업을 위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브레이킹 기술을 탐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도 있던지라 작업은 비교적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재밌었죠. 현대무용 장르에서의 안무 구성법에 브레이킹 기술을 대입해보고, 댄서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머리를 맞대면서 말 그대로 ‘함께 만드는 작품’이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춤’이라는 공통점과 ‘스타일’이라는 차이점을 가진 예술가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발휘했나요?

갬블러크루 춤에 관한 생각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동안 추던 춤이 달리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아이디어도 많아지는 경험이었죠. 댄서가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국내에 브레이킹이 자리잡은 역사가 매우 짧아요.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의 정체되지 않은 정보를 마구 받아들이며 성장해왔죠. 그래서 특유의 자유로움이 있고, 개개인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단체 작업에서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단체 퍼포먼스는 솔로 춤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현대무용가들과의 작업은 움직임을 확장하고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팀을 끌어가는데 많은 원동력을 얻기도 했고요.

고블린파티 현대무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근래에 제가 생각하는 현대무용이란 ‘기술이 없는 것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발레나 한국무용, 그리고 비보이에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과 테크닉이 존재하죠. 그런데 현대무용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무용이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비로소 다른 무언가와 합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협업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댄서에게 이번 신작은 어떤 작품인가요?

갬블러크루 갬블러크루와 고블린파티가 오랜 시간 각자의 춤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를 ‘세계 춤 여행’이라는 주제로, 춤으로 표현하고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저희는 춤을 매개로 세계를 여행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니 무척 흥미로운 주제죠. 주제가 가벼워서 오히려 신선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바를 신뜻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갬블러크루 멤버로만 공연을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고블린파티 무용수 다섯 명과 함께 무대에 섭니다. 극장 공연을 목표로

하는 첫 작품이기도 하고, 무용수 다섯(여성)과 비보이 다섯(남성)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저희 역시 궁금하고 설렘니다.

안무가에게 〈얼쑤, 얼쓰〉는 어떤 작품인가요?

고블린파티 일단은 비보이 크루의 작품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싶은 마음에 고블린파티 무용수들과의 협업을 제안했어요. 각자의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저는 브레이킹 기술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화려한 것보다 오히려 최대한 절제할 때, 기술이 더욱 돋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옆에서 작품을 끌고가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갬블러크루 박지훈 대표님께 영향을 받았어요. 춤추는 것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하는 멋진 분이죠. 아무래도 브레이킹 기술이 많은 체력을 요구하니 체력 안배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공연 중간중간 이야기를 건네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공연에서 사용되지만 고블린파티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렉처 퍼포먼스 형식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제를 좁혀가다 보니 고블린파티와 갬블러크루에게 ‘해외 투어’라는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특히 갬블러크루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지구 곳곳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얼쑤, 얼쓰〉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공유하고자 탄생한 작품입니다.

춤 매개로 다양한 문화와 우리 고유의 멋과 흥을 보여줄 텐데요. 각각의 장면은 어떻게 완성했나요?

갬블러크루 세계 각지의 다양한 춤을 다룬다는 점에서 처음엔 부담을 느끼기도 했어요. 우리는 춤꾼이지만 모든 장르의 춤을 섭렵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유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블린파티 이런 주제에서 가장 흔히 다루는 곳이 유럽권인데, 그런 선입견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상 국가를 다양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했죠. 페루의 남녀가 커피를 이뤄 추는 ‘마리네라’라는 춤,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뉴질랜드의 ‘하카’, 힌남신에서도 많이 차용되는 이집트의 손가락 춤 ‘터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길놀이를 선택했어요. 브레이킹은 스트리트 문화이고, 우리 전통의 길놀이 문화가 그와 연결된다고 봤죠. 장면 사이에는 미국의 배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배틀 오브 더 이어’에 참가했던 경험 등을 들려주려고 해요. 또 가장 첫 장면에는 고블린파티만, 마지막에는 갬블러크루만 출연하도록 구성했어요. 함께 춤추지만, 현대무용의 움직임을, 또 비보이의 브레이킹 기술을 한 번은 찌뚱하게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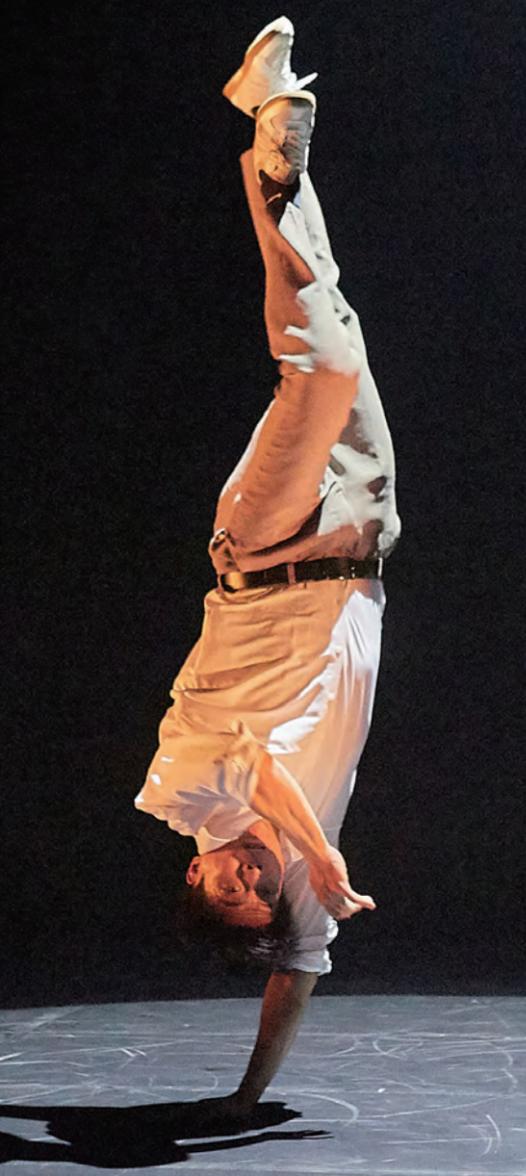
열린 관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아닌 실내 공연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고블린파티 비보이의 춤이 훌륭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극장 어디에도 비보이 공연이 레퍼토리로 정착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사실 야외 공연을 의뢰받았는데, 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은 뻥할 것으로 생각했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차로 실내 공연장, 2차로 현대무용수가 함께하는 구성을 제안했고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만큼 더 밀도 있고 섬세한 움직임으로 관객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고블린파티 어릴적 비보이를 향한 제 로망은 놀이공원에서 본 공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그때의 감동을 관객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브레이킹의 아름다움을 꼭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갬블러크루 댄서의 삶은 대체로 일반 시민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좋아하는 것을 맘껏 느끼면서 멋진 사람들과 만나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는 감사하게도 ‘춤’이라는 티켓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공연하고,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는 댄서들이죠. 언어는 다르지만 춤으로 모두와 소통 가능한 아름다운 순간을 이번 작품을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 관객 여러분도 비보이의 세계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떨까요?



팔을 다리처럼, 다리를 팔처럼

브레이킹, 예술의 경계에서

언뜻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춤에는 사실 솔한 연습 끝에 확장한 창조성이 담겨 있다. 브레이크댄스가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열린 체계인 이유다.

브레이크댄스는 바닥춤이다. 대부분의 춤이 일단 선 상태에서 갖가지 동작을 행한다면 브레이크댄스는 바닥에서 튕기고, 구르고, 펄럭이고, 뒤집는다. 공중으로 높이 도약하거나 공간을 가로지르는 대신 바닥을 활용해 낮은 공간을 밀도 있게 채운다.

바닥으로 내려가 보자. 쪼그려 앉아 있을 순 없으니 바닥에 손을 짚게 된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팔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상체 근력이 필수다. 걸음마를 댄 후 평생 직립해 살아온 인간은, 다리 힘이 빠질 때쯤이 되어서야 바로 서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하물며 팔로 몸무게를 지탱하려면 얼마나 단단한 코어와 균형 감각이 필요할까.

브레이크 댄서들은 팔을 다리처럼, 다리를 팔처럼 사용한다. 실리는 무개를 다리뿐 아니라 팔·머리·어깨 등으로 분산시키고, 자유로워진 두 다리로 다양한 제스처를 행한다. 그 결과 신체 부위의 위계나 역할 구분이 사라지고 움직임의 가능성이 확장됐다.

몸의 수직축도 깨어졌다. 브레이크댄스엔

응당 얼굴이 있어야 할 위치, 팔다리가 있어야 할 위치랄 게 없다. 마치 중력을 벗어난 것처럼 몸의 온갖 부위가 제각각의 위치와 방향을 가진다. 유아가 과자를 흘리지 않도록 설계된 이중 그릇을 처음 목격했을 때처럼 경이롭다. (궁금하다면 '자이로볼 그릇'을 검색해보라.)

다운록downrock이나 파워무브power move가 몸의 직립성과 수직축을 깨뜨린다면 프리즈freeze는 시간을 멈춰버린다. 박자를 쫓으며 현란하게 휘몰아치다가 스냅사진처럼 얼어버린다. 그것도 주로 한 손으로 온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그 옛날 공중으로 뛰어올라 머물렀다고 하는 니진스키Vaslav Nijinsky처럼 움직임의 한가운데서 멈추는 스펙터클을 선사한다. 댄서들이 프리즈로 춤을 마무리하곤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브레이크댄스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기교적이다. 아슬아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동작을 몰아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개성적이다. 그들의 춤엔 즉흥적인 요소도 많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명칭이 있는 동작이다. 초보자예겐 마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고수들은 기본 동작과 변형, 그리고 즉흥적인 시도와 개인의 독특한 동작을 읽어낼 수 있다.

동작 명칭은 직설적이고도 은유적이다. 바닥에서 한 다리를 빙빙 돌리는 커피 그라인더coffee grinder, 풍차처럼 온몸을 돌리는 윈드밀windmill, 바닥에서 떠 있는 플로트float, 불꽃처럼 일렁이는 플레어flare 등 듣는 순간 동작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명료하게 정리되거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댄서들이 기본 동작을 변형하고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브레이크댄스의 어휘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확장한다. 발레처럼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다. 그러니 브레이크댄스를 관람하는 것은 펄떡펄떡 살아 있는 전통을 목격하는 것이다.

내년 여름 열릴 2024 파리 올림픽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혁신'이다. 특히 파리 올림픽은 브레이크댄스를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도쿄 올림픽에서 시작된 스포츠 클라이밍·스케이트 보딩·서핑 등 '도심형 스포츠Urban Sports' 도입 흐름의 일환이다.

특히 브레이크댄스는 현대 스포츠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왜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스포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스포츠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규칙이 지배하는 경쟁적 신체 활동'이다. '규칙, 경쟁, 신체 활동'이 핵심이다. 얼핏 보면, 브레이크댄스는 이런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격렬한 신체 움직임을 동반하고,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 경쟁 요소 또한 존재한다.

브레이크댄스가 균열을 내는 건 '규칙' 영역이다. 브레이크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창의성이다. 실제 파리 올림픽에서 브레이크댄스는 디제이DJ가 트는 무작위 음악에 맞춰 즉흥 춤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를 위해 일부 규칙을 만들긴 하겠지만, 창의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젊은층에 익숙한 종목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브레이크댄스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창의성이다. 과거 스포츠가 아마추어리즘과 단절하며 체계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철학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과 효율을 강조해온 스포츠가 창조와 자유를 중시하는 예술과 만날 수 있는 이유다.

이는 그간 현대 스포츠가 보여온 행보와 정반대다. 지금까지 스포츠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비하고 종목을 제도화·체계화하는 길을 걸었다. 예를 들어 피겨스케이팅은 1920년대만 해도 예술과 스포츠를 종합한 창의성을 강조하는 종목이었다. 하지만 이후 경쟁이 심해지고 평가의 주관성 문제가 대두하면서, 누가 더 고난도 기술을 펼칠 수

혁신의 핵심은 창의성

현대 스포츠가 된 브레이크댄스

2024년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댄스. 그 변화에는 현대 스포츠의 혁신이 담겨 있다.

있는지를 겨루는 종목이 됐다.

태권도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태권도는 그간 판정 논란 등을 겪으며 여러 세부 규칙을 도입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경기 방식은 수비에 치중하며 필요한 점수만 내는 방식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갈수록 재미가 떨어졌다. 두 종목뿐 아니라 많은 종목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스포츠는 외면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올림픽 시청자도 계속 줄었다. 미국에서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는 N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 시청자는 1,700만 명이었다. 반면 2016 리우 올림픽은 2,650만 명, 2012 런던 올림픽은 4,070만 명이 시청했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더라도 두 대회 만에 시청자가 무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포츠계가 혁신에 나선 이유다.

이번 대회에서 브레이크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올림픽 정식 종목에 도전하는 다른 스포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댄스스포츠나 치어리딩이 대표적이다. 이들 종목은 평가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정식 종목이 되지 못했다. 또한 브레이크댄스는 그간 규칙에 얽매었던 기성 종목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들섬으로 떠나는 'B캉스' 2023 서울비브이페스티벌

축제의 계절, 여름. 브레이킹으로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더워진 날씨를 체감하며 그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를 발산할 축제의 장이 기다려지는 여름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우리 일상 곁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다채로운 춤과 디제잉, 힙합 뮤지션 공연까지 이 모든 구성을 서울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6월의 첫 주말, 색다른 B캉스를 고민한다면 온몸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2023 서울비브이페스티벌에 가보자.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그간 주춤했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브레이킹과 힙합, 디제잉 등 거리

공연으로 일상의 활력을 전하기 위해 처음 개최한 서울비브이페스티벌이 올해도 돌아온다. 아직은 청량한 초여름 날씨, 한강을 배경으로 노들섬에서 B캉스를 즐겨보면 어떨까?

올해 축제는 2회차를 맞이해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다. 한강 노들섬을 스트리트 문화가 넘쳐흐르는 예술섬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브레이킹을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니 참여를 망설이지 말 것! 딱 하루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매력 포인트를 정리했다.

시민평가단이 직접 뽑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브레이크댄스)'이 포함되면서 2000년대 초반 열풍을 일으킨 브레이킹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영역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엄연히 힙합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브레이킹은 춤의 영역에서 출발했으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브레이킹을 문화 콘텐츠의 한 장르로 인정하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브레이킹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를 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으로 선정된 크루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기회를 가지며, 공연 활동비를 지원받아 국내외에서 문화 교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덧붙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놀이와 브레이킹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교육 강사로서 브레이커(댄서)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한다. 2022년부터는 전문 예술가 대상으로 브레이킹 기술과 신체 사용법으로 구성된 기량 워크숍을 운영하며 다양한 장르간

협업을 통해 브레이킹의 문화 콘텐츠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축제의 주요 시간대인 오후 6시에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발전이 진행된다. 특별히 시민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수의 비보이 크루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타이틀 획득에 도전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모집된 시민평가단 100명과 전문가 저지judge(심사위원) 5명의 점수가 현장에서 집계돼 순위를 결정한다. 퍼포먼스 경연을 거쳐 최종 우승팀은 2024년까지 국내외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로 활동하며, 서울시민과

전 세계에 브레이킹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순위를 위한 종합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전설적인 한국 비보이 홍텐Hong10(김홍열)이 속한 플로우엑셀FlowXL과 일본 최고의 브레이킹팀 바디카니발Body Carnival의 이벤트 배틀 공연도 마련된다. 한일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응원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여름밤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흥미진진한 댄스 배틀과 저녁 바람에 리듬을 타는 힙합 뮤지션 공연

몇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을 계기로 여러 장르의 댄서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배틀 프로그램을 통해 댄서의 멋진 퍼포먼스와 치열하면서도 서로를 리스펙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아름다운 매너가 부각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방송에서만 접하던 댄스 배틀을 서울 한복판, 내 눈앞에서 직관할 수 있다면 어떨까?

노들섬 전체 공간을 두루 사용하며 펼쳐지는 댄스 배틀은 시드 배정전부터 8강까지는 전용 무대에서 치르고, 4강과 결승은 잔디마당 메인 무대로 옮겨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노들섬 내 어디서든 배틀 프로그램을 쉽게 관람할 수 있다. ‘댄서들의 댄서’가 펼쳐지는 저지쇼도 놓치지 말 것.

3on3 올스타일 댄스 배틀

배틀을 위해 마련한 전용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댄서 3명이 한 팀이 돼 팀 배틀을 진행한다. 대진표를 구성하기 위한 시드 배정전부터 결승까지, 장르 불문!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구성된 동작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on2 브레이킹 배틀

비보이와 비걸, 성별 무관 두 사람을 팀으로 한 브레이킹 배틀도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직관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브레이커를 가리는 배틀! DJ의 음악에 맞춰 즉흥 댄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힙합 뮤지션 공연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힙합 뮤지션 공연도 준비된다. 엠넷Mnet <쇼미더머니9> 우승자인 래퍼 릴보이와 울트라코리아 등 각종 페스티벌에서 두각을 나타낸 프로듀서이자 DJ 딥사위가 선정한 여름밤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선사한다. 축제가 열리는 노들섬이 마치 대형 파티 장소가 된 것처럼 힙합의 자유로운 에너지로 가득 찰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트리트 문화

지난해 특히 관람객의 호응이 높았던 부대 프로그램이 올해 총 일곱 가지로 늘어났다. 체험 존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Splash Zone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그래피티 굿즈 만들기, 물총을 활용한 액션 페인팅 체험

Boom Up Zone

브레이킹 프리즈 체험, 페스티벌 헤어스타일링 체험, 인스턴트 타투 체험

Feeling Zone

디제잉 체험 강습, 스케이트보드 체험 강습

체험 프로그램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로 운영되며,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비보이페스티벌 인스타그램(@s.b.f.official)에서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비보이페스티벌’ 또는 운영사무국(02.537.7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으니 아울러 브레이킹과 스트리트 문화의 자유로운 에너지로 노들섬을 가득 메우는 서울비보이페스티벌에서 알차게 ‘B강스’를 즐겨 보자.

2023 서울비보이페스티벌

6월 3일 정오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 노들섬 일대

예술가의 진심

김은성의 조명은 낮은 곳을 향해

페이퍼로그

청년예술팀 운동주

문화+후원

올림픽스한국-서울문화재단 함께한 10년

인사이드

퀴드 초이스-서도와 은미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

예술단체 아카이브

더블데크웍스

아트컴퍼니나우

트렌드

세계 음악축제의 얼굴이 된 K-팝

확장하는 공연장 지도, 모두를 위한 공간 되려면

해외는 지금

영화제는 어떻게 칸의 상징이 되었나

ASSOCIATED

김 은 성 의

조 명 은

낮 은 곳 을

향 해





지난 2월 LG아트센터에 오른 연극 <빵야>2023는 일본군이 사용한 아리사카 99식 소총 '빵야'와, 이념도 국적으로 다르면서 이를 소유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제 강점기 말부터 이념적 대립이 심했던 광복 후,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눠야 했던 젊은이들은 가장 빛나야 했던 청춘을 어두운 역사에 훼손당했다. 묵직한 역사의 무게감을 담으면서도 개개인의 상처를 보듬는 <빵야>는 작가 김은성이 연극으로는 <그 개>2018 이후 5년 만에 선보인 작품이다. 역사를 바탕으로 굵직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도 각 인물의 세밀한 묘사를 놓치지 않은 작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작품 세계의 자양분, 보성 읍내

<빵야>는 김은성 작가의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사의 사건들이 남기고 간 아픔들, 그것을 가장 깊게 느낄 수밖에 없던 낮은 자리의 인물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형식적으로는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이의 손으로 수첩이 옮겨가면서 이를 소유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의 또 다른 작품 <쌌사인의 전사들>2016과 종종 비교된다. 근현대사의 사건과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온도는 그의 다른 작품과 다르지 않고, 플롯 면에서는 <쌌사인의 전사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빵야>의 세계는 이전의 작품과 분명 다른 성취를 이룬다. 역사 속의 낯선 자리한 인물들을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대적인 인물인, 한물간 드라마 작가나나를 유쾌한 톤으로 다루면서 한 축으로 삼았고,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기 위한 매개가 된 총을 의인화해 등장시켰다. 게다가 살인의 도구인 총의 꿈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였다는 설정으로 인간을 넘어 자연으로 확대 파생되는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김은성 작가는 <빵야>가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였으며 <쌌사인의 전사들>과 구별한다.

“<쌌사인의 전사들>이 모든 장면을 사실적으로 구축한 희곡이라면, <빵야>는 그 형식을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언젠가부터 사실적인 장면 구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방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활용한 것이 방백이에요. 매 순간 대소도구나 소품을 등장시켜서 사실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등장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라고 안내를 해버리는 거죠. 방백은 셰익스피어 극에서도 자주 등장한 진부한 형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런 연극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대에서 지금의 관객들과 호흡하기에 더 어울릴 것으로 봤어요.”

김은성의 작품은 역사에 주목하는 인물이나 그에 대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를 꾀한다. 데뷔 이후 꾸준히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이제는 중견 작가 축에 드는 김은성은 연극과의 조우가 상당히 늦었다. 그가 연극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이전까지 연극 포스터에서 막연히 느낀 연극은 “서커스나 무슨 사기꾼 같은, 저 세계와는 친해지고 싶지 않은” 세계였다. 그런 그가 북한학과에 들어가 학업보다는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방송반 위층에 있는 극예술연구회의 음향 일을 도와주면서 처음 연극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국문과 학생이 쓰고 연출하고 출연하기도 한 창작극이었는데 ‘연극이 참 재밌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들어오고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극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낮은 소품과 의상으로 관객을 전혀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투박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극의 세계에 매료된 것이다.

국문과의 연극 관련 수업을 청강하고, 연극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퇴하고 새롭게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빠르게 흡수해갔다. 그러나 연극을 알기 이전 북한학과의 경험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살 이전까지 살았던 보성에서의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역사적 모순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면서도, 그 속에 상처받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아픔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준다.”(김은성 희곡집 『시동라사』2011 해설)고 평가받는 작가 김은성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역사의식’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다. 여기에는 보성에서의 유년기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다. “어린 시절 역전의 읍내 상가에서 살았어요. 나름 읍내에서는 부잣집 막내아들이었죠. 길 건너에 논밭이 있어 읍내와 시골이 공존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장터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많이 모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드세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캐릭터를 보고 자랐죠. 시골이 바로 옆이니깐 개구리 잡고 수영하러 가고, 연을 날리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축복받은 유년을 살았죠.” 보성에서의 유년 시절은 자연과 도심의 분위기를 느끼고 다양한 인물 군상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작가 수업 기간이었다. 그의 작품에 중요한 모티브인 역사적 문제의식 역시 보성에서 보낸 유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된 의식이었다.

“장터가 위치했던 역전 공간은 여순사건 때 아주 험악한 일이 벌어진 곳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아주 입담이 좋으신 분이데, 그 당시 사람들을 건물 위에 밧줄로 묶어 주르륵 매달아서 드르륵 쓰니까 우루루 떨어졌다고 실감나게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저에게 이야기해준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5.18 때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네 집으로 피신해서 하루 종일 이불 뒤집어쓰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순사건이 이들에게는 빨간 단추로 작용한 거죠.” 그런 유년기를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쟁 시기나 1960~70년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문학 작품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김은성만의 작품 세계가 구축됐다.

김은성의 작품 세계를 구분해보면 유년 시절의 자양분과 연극의 호기심 그리고 그의 소중한 은사인 윤영선 선생의 영향을 깊이 받은 <시동라사> 시절을 제일 먼저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평생의 은사인 윤영선 선생의 희곡 쓰기 수업에서 개발한 작품으로, 후에 이 작품으로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게 된다. 신인의 작품이라고 보기에 이미 작가의 세계관이 깊고 완성도가 높아 신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다고 한다. <시동라사>는 강원도 시동이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라사(양복집)를 운영하는,

시대에서 밀려나는 재봉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시동라사> 이후 학교 동기들과 극단을 만들고 대학로에 나와 공연하면서,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드라진 작품들이 등장했다.

원작보다 더 원작 같은 번안작

시기와 상관없이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김은성의 작품은 원작을 모티브 삼은 작품이나, 그렇지 않은 작품이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적지 않은 작품이 기존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번안한 작품이다.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의 <바냐아저씨>를 1970년대 아지 섬에 불교했던 서울 잠실에서 농사짓는 총각 <순우삼촌>의 이야기로, 체호프의 <갈매기>는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대학 그룹사운드와 한때 유명했던 여가수와 최고의 작곡가 이야기인 <빨>로 바꾼다. 류보미르 시모비치Ljubomir Simović의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좌우 이념적 대립이 극단에 치달는 1950년대 보성 새재마을에 온 유랑극단의 이야기 <로퐁찬 유랑극장>으로, 테너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의 <유리동물원>은 서울 변두리 옥탑방에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달나라 연속극>으로 번안했다.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햄릿> 역시 재벌가의 딸 <함익>으로 각색하기도 했다.

이들 작품은 한국의 역사적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원작을 바꿔 놓았는데, 원작의 플롯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인물의 세밀한 정서가 살아난다. 작품의 정보가 없는 관객에게 굳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원작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여러 번 공연을 보거나 희곡을 읽었던 작품이에요. <유리동물원> 같은 경우는 10년간 메모를 했어요. 분명 미국 변두리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주고받는 말들이 내 친구 같고, 엄마 같고, 나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상들을 기록해 두면서 언젠간 공연으로 만들어야지 했던 작품이에요.”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작품에서 받은 인상을 한국의 시대적 배경 속 인물이나 사건에 녹여내지만, <갈매기>를 번안한 <빨>의 경우는

달랐다고 한다. “아이디어나 쓰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서사 구축이 막힐 때 문득 기존 작품과 연관성이 느껴져서 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이 그런 작품이에요.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가수와 대중 가수의 갈등을 1980년대 배경으로 그려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작업 중이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갈매기>를 변형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고전을 한국적으로 훌륭하게 번안하면서 한국적 상황으로 절묘하게 녹여냈던 작업은 <함익> 이후 아직 새롭게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번안하고 싶은 원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음악극 작업과 쓰고 싶은 작품 두 편에 더 관심이 크다.

새로운 시대와 발맞춰

2018년 기존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크게 다른 영역으로 발을 내민 작품이 <그 개>다. 작가가 당시 살고 있던 성북동을 거닐며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그 개>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작가가 몸담은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 이후 도전한 작품이 오페라 <장충>²⁰²²이다. <뽕아>의 원작이자 오페라 버전인 이 작품을 통해 음악극에 처음 도전했다. 그리고 그 인연 때문인지 오는 6월 국립창극단에서 올리는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의 작가로 참여한다. “제안을 주셔서 너무 기뻐요. 창극단 배우들의 역량이 굉장해요. 단체가 전성기일 때 작품을 보면 살아 있는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지금 국립창극단에서는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나 첫 기쁨만큼 과정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초고가 나오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오페라로 음악극을 경험했지만 창극은 처음이고, 코미디를 음악극으로 만드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열심히 한 것만큼 부끄럽지 않지만, 그만큼 작품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 작가가 창극을 쓰기 위해선 소리를 알아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자책한다. 작창의 한승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기량을 갖춘 국립창극단 배우가 참여하는 작품이니만큼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완해내리라 본다.

창극 이외에도 연말에는 서울시뮤지컬단 <맥베스> 작가로 뮤지컬 장르를 경험한다. 워낙

뛰어난 번안을 해내는 작가이기에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도, 뮤지컬 <맥베스>도 한국적 상황으로 번안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두 작품 모두 원작의 배경과 틀에서 음악극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시대나 인물은 바꾸지 않았지만 몇 가지 설정을 바꾸다 보니 색다른 <맥베스>가 될 것 같아요.”

창극과 뮤지컬 작품을 선보인 이후 다음 작품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쓰고 싶은 작품은 있다. 2070년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과, 다른 하나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번안극도 관심이 있는 작품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두 작품을 무대화하는 게 먼저다.

한편, 서울연극센터에선 올해 서울스테이지11의 일환으로 네 차례에 걸쳐 ‘체홉을 듣는 오후’라는 타이틀로 낭독공연을 한다. 5월 <갈매기>를 시작으로 7월 <바나아저씨>, 9월 <벚꽃동산>, 11월 <세자매> 낭독 공연을 부세롬 연출과 함께 올릴 예정이다. “원래는 연극센터 재개관 프로그램 ‘퇴근 후 공연 전’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안 드렸어요. 한때 활발하게 연극 무대에서 활약한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극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이분들은 여전히 연극 무대 서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긴 연습 시간이나 공연 기간은 부담스러우니까 짧게 준비하는 낭독공연이면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5월 <갈매기> 낭독공연에는 이대연·황영희·강말금·정새별·김종태·우미화 등 한동안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느라 연극 무대에서는 좀체 만나지 못한 반가운 얼굴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희곡 읽는 팟캐스트, 웹진 [연극in] 인터뷰 코너 진행 등 작가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본인은 “연출과를 나왔지만 연출가로 풀지 못한 끼를 발산하는 창구”라고 말한다. 이번 낭독공연과 음악극에 도전은 지금까지 김은성 작가의 행보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늘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비추는 무대를 사랑했고, 더 많은 관객들이 그런 무대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어 뿐이다.



청년예술팀 운동주

청년으로서, 청년을 위해

청년예술청은 어떤 공간인가요.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 인근이라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와 걸어서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을 자랑하지요. 청년예술청은 이런 훌륭한 접근성을 십분 활용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형 공유 오피스와 대관할 수 있는 회의실, 연습실, 그레이룸(발표 공간), 화이트룸(전시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재단에서 일하게 됐나요.

저는 대학에서 문화콘텐츠를 전공했어요.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기보다 문화와 예술 전반에 대해 두루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았어요. 광고와 마케팅을 활용해 기업 홍보 업무를 하거나 축제 기획사나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꿈꾸기도 했죠. 하우스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 기획자가 돼볼까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진로를 두고 방황하다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에서 행정스태프로 근무하게 됐어요. 재단에서 문화예술 행정 업무를 익히면서 이곳이라면 하고 싶은 게 많은 내게 딱 맞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2020년 입사해서 청년예술팀에서 근무하다가, 6월부터 거리예술축제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2020년 개관한 청년예술청과 시작을 함께했네요. 제가 이곳에 합류했을 때는 이미



청년예술청 공간 조성에 관한 콘셉트가 확정된 상태였어요. '청년스러움'은 지양하자는 기조였죠. 청년을 위한 공간이라면 흔히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미완성 형태의 공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관성적인 인식이 청년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잘 갖춰진,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 실제로 청년예술청을 처음 찾는 분들이 카페형 공유 오피스를 보고 호텔 로비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공간을 구성하는 작은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를테면 이곳에 들어설 때 맡게 되는 향, 머무르는 동안 듣는 음악, 카페의 식기류나 서재의 책 같은 것들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공간의 완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예술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소개해주세요. 청년예술청은 공간 운영만 아니라 자체 기획 사업으로 거버넌스, 청년·유망예술지원,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거버넌스와 올해 새롭게 생겨난 청년예술지원을 담당했고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에 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담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버넌스예요. 6월 2일까지 신규 구성원을 모집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올해 원로예술지원과 함께 신설됐는데요. 예술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첫 작품'의 발표를 지원합니다. 창작지원금 외에 각종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공모 시점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명이 선정돼 작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북토크를 열었다고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매년 그해의 활동 결과를 엮어 '숨은참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어요. 2022년 이야기를 기록한 『숨은참조: 중요 편지함』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과 만나 수집한 이야기가 독자의 '중요 편지함'에 보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책에는 신규 기획 사업으로 운영한 '미니살롱'과 '정책제안'의 배경과 시범 운영 결과도 상세하게 다뤘어요. 부록 '첨부파일'에는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진솔한 인터뷰를 실었고요. 같이 일하면서도 미처 서로 말하거나 듣지 못한 이야기가 글로 담겨 있죠. 온라인으로 진행한 북토크에서는 책에 소개된 여러 주제를 두고 동료 청년 예술인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가장 골몰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지원사업을 새롭게 설계하고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술지원 체계와 지원사업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현재의 지원사업은 공모와 심사, 집행, 정산 과정에서 예술가와 담당자 모두 다소 번거롭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까, 일부 과정을 대신할 방법은 없을까 자주 생각해요. 이런 주제는 사실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실험하고 공론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원사업 담당자로서 여러 실험과 상상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 기사가 발행될 시점에는 거리예술축제팀에 근무하게 돼 거리예술이나 서커스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어요.

나의 일상에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감명받고, 영감을 얻어요.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영화 <토리야 로키타>를 보고 다르덴 형제 감독과의 GV에 참여했는데요. 영화도 좋았지만, 두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무척 인상깊었어요.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영화를 본 관객의 삶은 바꿀 수 있다"는 감독의 말이 오래 기억에 남네요.



올림푸스한국-서울문화재단 함께한 10년

치유와 긍정의 예술 메신저

글로벌 의료기업 올림푸스한국과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한 지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두 기관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올림푸스한국 사옥에 있던 올림푸스홀에서 진행된 행사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 아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민의 일상 곳곳으로 찾아가는 캠페인 '바람난 미술' 연계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창작지원사업 '다빈치 아이디어마켓' 등 사업에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카메라를 지원해 청소년이 사진을 통해 창의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도 했다.

다양한 동시대 이야기를 '영동한' 예술로 담다

올림푸스한국과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제휴 사업은 시민 참여 프로젝트 '영동한 시리즈'다. 2015년 '영동한 사진관'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두 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낸 프로젝트라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예술 작업을 통해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2015년 청년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 청년 취업난 문제를 다룬 뒷모습 증명사진 프로젝트 '3×4: 우리들의 초상'에는 청년뿐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시민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2016년에는 1인 가구 청년과 가족,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가족보관함》 전시로 폭넓은 세대의 호응을 끌어냈다. 또 2017년에는 최저임금을 주제로 《6470展》을 열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 2022년 감정서가에서 진행된 시민 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



노동의 가치를 상기했고, 2018년에는 청년 주거 문제와 꿈을 주제로 퍼포먼스형 사진 프로젝트 '몸집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많은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에는 '서울에서 경험한 치유와 회복의 기억'을 주제로 《짜다: 리메이드 인 서울》이 열렸다. 이 결과 전시는 동시대인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자아의 탄력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2020년에는 장르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 참여에 초점을 맞춰 사업명을 '영동한 시리즈'로 개편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리적 관계가 차단된 생활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 이슈와 관계 변화를 다룬 《용례채집: 관계의 재해석》은 익숙한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단절된 일상에서 비슷하고도 다른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예술을 매개로 회복과 연결을 꾀하다

2022년에는 시민이 참여해 예술을 매개로 회복과 연결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을 진행했다. 용산에 위치한 서울예술교육센터 내 감정서가에서 진행된 '감정문답'은 설은아 작가의 미러 디스플레이 설치 작품을 통해 거울에 비친 자신을 촬영하는 셀프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여러 시민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물을 새롭게 큐레이션해 사회·심리적 단절을 '연결'로 전환한 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결과 전시를 구성했다. 다양한 세대의 질문과 생각을 엿볼 수 있던 시간으로, 특히 올림푸스 한국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 '고잉 온 Going-on'과 연계해 암 경험자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지닌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고잉 온'은 조기 검진, 치료 기술

↑ 영동한 시리즈 2020 결과 전시 《용례채집: 관계의 재해석》

발달 등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그 이름에는 암 발병 후에도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올림푸스한국과 서울문화재단의 제휴 사업은 지속된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시민의 감정을 예술로 발현시킬지 벌써 기대를 모은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사회적 인식을 바꿀 좋은 기회가 된다.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예술을 통해 감동과 행복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 올림푸스한국이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무'와'무한'이 만나 펼치는 난장 퀘드 초이스- 서도와은미

조선팝의 창시자인 서도밴드의 프론트맨 '서도'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은미'. 두 예술가가 합심해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대학로극장 퀘드에서 <만병통치락樂>을 선보인다. 어느 무더운 날 '서도와은미'의 작당모의가 이뤄지는 한 연습실을 찾아갔다.

<만병통치락樂>은 어떤 공연인가. 은미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악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다. 공연을 보는 모든 관객의 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신성한 파워를 가진 즐거움을 주자는 뜻에서 공연명을 '만병통치락樂'으로 지었다. 우리 공연은 비주얼이 주가 되지만 서도의 노래로 사운드가 가득 차고 일곱 명의 무용수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온다. 한마디로 비주얼-사운드-보디의 총체극이라 할 수 있겠다. 올해 초 대학로극장 퀘드에서 전통 장르의 공연을 해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서도가 떠올랐다. 어릴 적부터 판소리를 배운 서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듣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기운이 있다. 이번에는 밴드 사운드를 빼고 오직 서도의 소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연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서도 지난해 양평에서 열린 <페스티벌 다다: 양강섬예술축제>에서 처음으로 같이 공연한 직후에 선생님께서 웃 좀 잘 입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주신 적이 있다. 캐릭터가 정말 뚜렷한데 무대에서 웃이 아쉽다고. (웃음) 그때를 계기로 이번 무대에 나를 떠올리신 것 같다. 밴드 없이 '서도와은미'로 공연을 올린다고 하니 주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통 소리를 안 한 이후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은 처음 해 본다. 어려모로 신나는 공연이 될 것 같다.

연출노트에 '관객에게 익숙한 음악을 서도의 소리로 다시 만들어 새 옷을 입는다'고 적혀 있다. 이번 공연에서 관객은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까.

서도 지나간 가요를 위주로 세트리스트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윤시내·정미조·정훈희·김추자와 같은, 한 시대를 풍미한 여걸*들의 노래를 니만의 스타일로 꾸며보고 있다.

은미 일단 서도 목에 편한 노래를 선곡해야 한다. 타인의 노래 위에 자기 목소리를 더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다. 서도가 골라온 노래에 맞춰 안은미컴퍼니 단원들이 함께 움직임과 연출적인 효과를 찾아가고 있다.

음악과 무용이 만나 비주얼이 주가 되는 공연이라니! 무대의 각종 요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다.

은미 아까 서도가웃 얘기를 잠깐 꺼냈지만,



나는 내 스타일의 때때움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입히는 것이 좋다. 알록달록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때때움이라고 부르는데, 서도에게 맞는 때때움을 찾으려고 스타일리스트 발코,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이첼과 고민하고 있다. 길고 가느다란 몸에 맞는 옷감의 무게, 서도가 자주 하는 제스처, 소리할 때 힘을 받는 자세와 곡의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를 신경쓰고 있다. 무대로 넘어가면 객석을 편익적 노상 자리처럼 깔아놓으려고 한다. 플라스틱 원형 테이블과 현란한 색깔의 의자를 놓고 마치 술을 마실 것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했으면 좋겠다. 극장 로비는 의상 쇼룸처럼 만들 거다. 안은미컴퍼니 의상이 꽤 강렬하지 않나. 공연 전후로도 눈이 즐거울 거다.

현란한 비주얼에 여성 디바의 노래라니, 드래그 공연이 연상되기도 한다.
은미 사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드래그drag를 하고 있다. 인간은 원래 누드로 태어났지 않나. 모두 가짜 옷을 입고 사는 거다. 공연을 안은미 스타일의 드래그로 볼 수도 있겠다.

안은미의 공연은 관객을 가만두지 않고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공연을 더 잘 즐기기 위해 관객에게 미리 전할 팁이 있다면.

은미 일단 극장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 (웃음) 이번 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꾸며보고 있다. 하지만 꼭 일어나서 춤추고 땀 필요는 없다. 강요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대신 뛰어준다. (웃음) 어차피 우리가 객석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관객은 자리에 앉아서도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된다.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고 기웃거리기만 해도 그게 춤이 된다. 어떻게든 움직일 순 있을 거다. 편안한 공간 속 아티스트와 가까이에서 깊은 사운드와 멋진 움직임을 직접 체험하는 게 <만병통치락>이다.

서도 그동안 해온 공연은 가장 이들이었는데 이번엔 사흘을 한다. 어릴 때부터 계속 음악을 하고 무대에 서왔지만 3일을 내리 노래하는 건 처음이라 내게도 새로운 경험일 것 같다. 안은미 선생님이 똑같은 공연을 매일 해도 매일 느끼는 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나도 공감한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매일매일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서도가 보는 은미는, 그리고 은미가 보는 서도는 어떤 파트너인가.
서도 안은미 선생님은 '무'다. '안은미'를 떠올리면 화려하고 비비드한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지만,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보인다.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머리카락을 없애시기도 했고. (웃음)
은미 그렇다면 나는 서도를

'무한無限'이라고 하겠다. 서도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다. 재능도 많고 매력도 있고,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다. 이번엔 나와 만나 <만병통치락樂>을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아티스트와 만나 다양한 장르를 공부하고 무대를 수행 장소 삼아 많이 느끼고 배우면 좋겠다.
서도에게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도와 은미 <만병통치락樂>
7월 7일부터 9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



모두가 예술과 손잡고,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는 지난 4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소외되는 계층과 문화 사각지대 없이 시민 모두가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받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문화재단도 이에 적극 동참해 청년층과 취약 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서울청년문화패스 올해 처음 시작한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만 19세(2004년생, 내·외국인)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카드)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청년은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다장르의 공연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재단은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볼만한 작품을 모아 매월 추천 공연 목록을 제공한다. 작품 예매 사이트에서 장르별 전문가의 추천 작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문화이용권 사용에 유용한 가이드가 된다.

2 문화누리카드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1인당 연간 11만 원씩 총 431억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문화 복지 사업이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2만 7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강달빛야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허용 품목인 식음료 결제가 야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취약 계층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3 댄스포피디 서울무용센터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을 돕고 일상 활력에 도움을 주는 무용치료 프로그램 '댄스포피디Dance for PD'(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환자를 위한 무용)를 운영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협력해 마련한 댄스포피디는 미국 마크 모리스 무용단Mark Morris

Dance Group에서 개발한 특허 프로그램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는 호평 속에 전 세계 28개국 300여 기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무용예술의 미적 요소를 경험하고, 움직임을 통한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6월까지 10주간 상반기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 모집은 서울무용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 혹은 보호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4 서울스테이지11 11개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에서 매월 첫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예술공간 콘서트 '서울스테이지11'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해 일 년간 63회 공연, 약 6천 명 시민이 관람하고, 예술인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도록 공연 시간을 정오와 오후 2시로 편성했다. 더불어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11'을 신설해 이동약자와 고연령층 대상 방문 공연을 진행하고, 많은 시민이 모이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는 '서울스테이지11' 특별판을 선보인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매월 달라지는 출연진 세부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블데크웍스double deck works
SINCE
 2018년 4월
ABOUT
 미학을 공부하며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김솔지와 시각예술 큐레이터 강재영이 2018년 함께 설립한 예술 기획사·출판사다. '더블 데크 카세트 플레이어'처럼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이들이 위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협업을 토대로 전시 기획, 출판, 시각예술 아카이브,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MAJOR WORK
 《지구를 겪어본 적이 없네요》(서울연극센터), 《THINGS LEFT UNMADE》(챔버1965), 오민수 개인전 《사람은 빛을 본다 시は光を見る》(금천예술공장), 《환영으로 채운 굴과 조각보로 기운 장벽 탐사대》(hall1), 《여행하는 눈》(신촌문화발전소)
MEMBER
 김솔지, 강재영
IN 2023
 더블데크웍스 협력 공연으로 반재하의 〈PLAY HOME, SWEET HOME〉이 6월 3일과 4일 탈영역우정국에서 열린다. 11월에는 〈리서치룸-노이즈, 입자, 이미지, 파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트컴퍼니나우
SINCE
 2011년 1월
ABOUT
 삶과 사람, 교육과 예술, 치유와 성장을 모토로 예술과 공존하는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2011년 설립한 아트컴퍼니나우는 연극·미술·음악·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매개로 인간의 창조성과 상상력, 즉흥성, 자발성을 계발하고 있다. 통합 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예술이 지닌 본연의 힘을 믿고 연구하고 있다.

MAJOR WORK
 〈불안, 프로메테우스의 선물〉, 〈한 겨울 밤의 꿈〉, 〈미, 우리는 미쳤다〉, 〈또 다른 밤의 꿈〉, 〈비상선언〉
MEMBER
 광경숙, 전재호, 김진경, 이송민, 박단비
IN 2023
 서울문화재단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손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11월 29일까지 강북구 아트컴퍼니나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청각장애 아동(농아동·인공와우 수술 아동)을 대상으로 수어와 음성언어를 사용해 그림책을 읽고 극적 상황으로 표현해보는 연극 활동으로, 듣는 것이 아닌 보는 소리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언어를 예술로 승화해본다.





달라진 위상과 시대 변화, 세계 음악축제의 얼굴이 된 K-팝

“4년 전 코첼라에 초청받았는데,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악 축제에 헤드라이너로 서게 됐어요. 꿈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블랙핑크 로제)

지난 4월 15일과 22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 최대 음악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12만 5천 명 관객과 만나는 대형 축제 무대에서 검정과 분홍 의상을 입은 블랙핑크가 등장했다. 지난해 발매한 정규 2집 수록곡 ‘핑크 베놈Pink Venom’으로 무대의 포문을 연 블랙핑크는 한국의

미·K-팝의 화려함을 아우른 무대를 선보였다. 블랙핑크의 이날 무대는 ‘백인 헤드라이너’가 등장하지 않은 최초의 코첼라 무대라는 새 역사를 썼다.

3세대 블랙핑크를 필두로 4세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뉴진스 등 K-팝 그룹이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올해는 K-팝이 세계 음악축제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상징이 되다

K-팝 그룹이 줄줄이 세계적인 대중음악 축제에 소환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를 필두로 영미·유럽 등 주류 팝 시장에 침투한 K-팝의 영향력이 커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올해는 굵직한 그룹들의 ‘헤드라이너’ 출연도 많다.

블랙핑크는 코첼라에 이어 오는 7월 2일 영국 최고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BST Hyde Park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 대형 음악축제의 하나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Lollapalooza (8월 3~6일)에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다. 롤라팔루자에 2년 연속 출연한 K-팝 그룹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이다. 이 그룹은 북미 음악축제 진출 1년 만에 메인 공연자로 서게 됐다. 스트레이키즈는 프랑스 파리 롱샴 경마장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 파리Lollapalooza Paris (7월 21~23일)에 첫째 날 헤드라이너로 참석한다.

‘헤드라이너’는 그해 축제의 상징 같은 존재다. 그간 코첼라와 롤라팔루자에서 헤드라이너를 장식한 아티스트로 폴 매카트니·비욘세·에미넴·레이디 가가·콜드플레이 등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대형 팝스타와 10대들의 우상인 빌리 아일리시·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있다. 롤라팔루자 시카고의 올해 라인업엔 빌리

← 4월 15일 코첼라 현장을 수놓은 드론쇼 ©Coachella
→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 ©YG엔터테인먼트

아일리시·켄드릭 라마 등이 포함됐다. 음악축제에선 한 해 라인업을 짤 때 까다로운 요건을 세워두고 헤드라이너를 뽑는다. 팬덤의 크기는 물론 헤드라이너의 음악성, 대중성, 위상까지 아우른다. K-팝 가수들의 강점은 세련된 무대 연출, 화려한 퍼포먼스와 비주얼, 뛰어난 라이브 실력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음악 축제의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라며, “K-팝 가수들이 10만여 명 앞에서 라이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음악성과 탄탄한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K-팝 그룹을 마다하지 않게 됐다”고 귀띔했다.

블랙핑크가 4년 만에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에 헤드라이너로 선 것은 이들은 물론, K-팝이라는 장르에 대한 북미 지역에서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 블랙핑크는 발매하는 음반마다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기록을 세우고,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2위에 오른 그룹이다. 이미 K-팝 카테고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걸그룹’으로 성장한 블랙핑크는 첫날 축제 이후 ‘코첼라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공연’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IT 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 집계 따르면 유튜브에서 무려 2억 5천만 명의 라이브 시청자를 모았다. ‘LA타임스Los Angeles Times’는 “비욘세가 역사를 쓴 201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와 기술, 강렬함이었다”고, ‘버라이어티Variet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의 가장 큰 무대를 정복하는 것은 결코 작은 업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도약을 넘어 ‘메인 스트림’으로

K-팝 그룹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 세계 대중음악의 메인 스트림으로 불리는 음악축제에 초청됐다. 그룹 뉴진스는 롤라팔루자 시카고 공연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축제에 데뷔한다. 시카고 축제에 K-팝 걸그룹이 초대받은 것은 뉴진스가 처음이다. 또 일본 서머소닉SUMMER SONIC 라인업(8월



19일)에도 이름을 올렸다. 엔하이픈도 뉴진스와 함께 일본 최대 음악축제 서머소닉 무대에 선다.

에스파도 미국 음악축제에 줄줄이 초청받고 있다. 미국 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The Governors Ball Music Festival (6월 9~11일)을 시작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공원에서 열리는 아웃사이드 랜드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Outside Lands Music and Arts Festival (8월 11~13일)에도 출연한다. 두 축제에 K-팝 그룹이 출연하는 것은 에스파가 처음이다. 레드벨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6월 1~3일), 마드리드(6월 8~10일)에서 열리는 프리마베라 사운드Primavera Sound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K-팝 가수들의 출연은 팬덤 위주의 음악으로 여겨지던 장르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음악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런 와중에 K-팝은 물론 라틴·일렉트로닉·힙합 등에 대한 소구가 높아지며 팝 음악계에선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됐다. 음악축제에도 이런 경향이 반영돼

↑ 4세대 대표 K-팝 그룹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라인업의 변화가 나타났고,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는 과정에서 K-팝이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이다. 특히 K-팝 가수들의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라이브네이션·AEG 등의 세계적인 에이전시와 공연 프로모터들이 현지에서의 성과를 확인하며 자신들이 관여하는 페스티벌에 K-팝 가수들을 세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졌다. 글자의 해외 에이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팝 밴드와 비교해 출연료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관객 동원력이 보장됐다는 점도 이들의 강점이다.

이런 흐름은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다. 이 관계자는 “K-팝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객들이 모이는 대형 페스티벌 출연을 통해 코어 팬을 넘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축제 입장에서 트랜드의 최전선에 있는 음악 장르의 유입으로 ‘홍행’을 담보할 수 있어 K-팝 아티스트의 메인스트림 진출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확장하는 공연장지도, 모두를 위한 공간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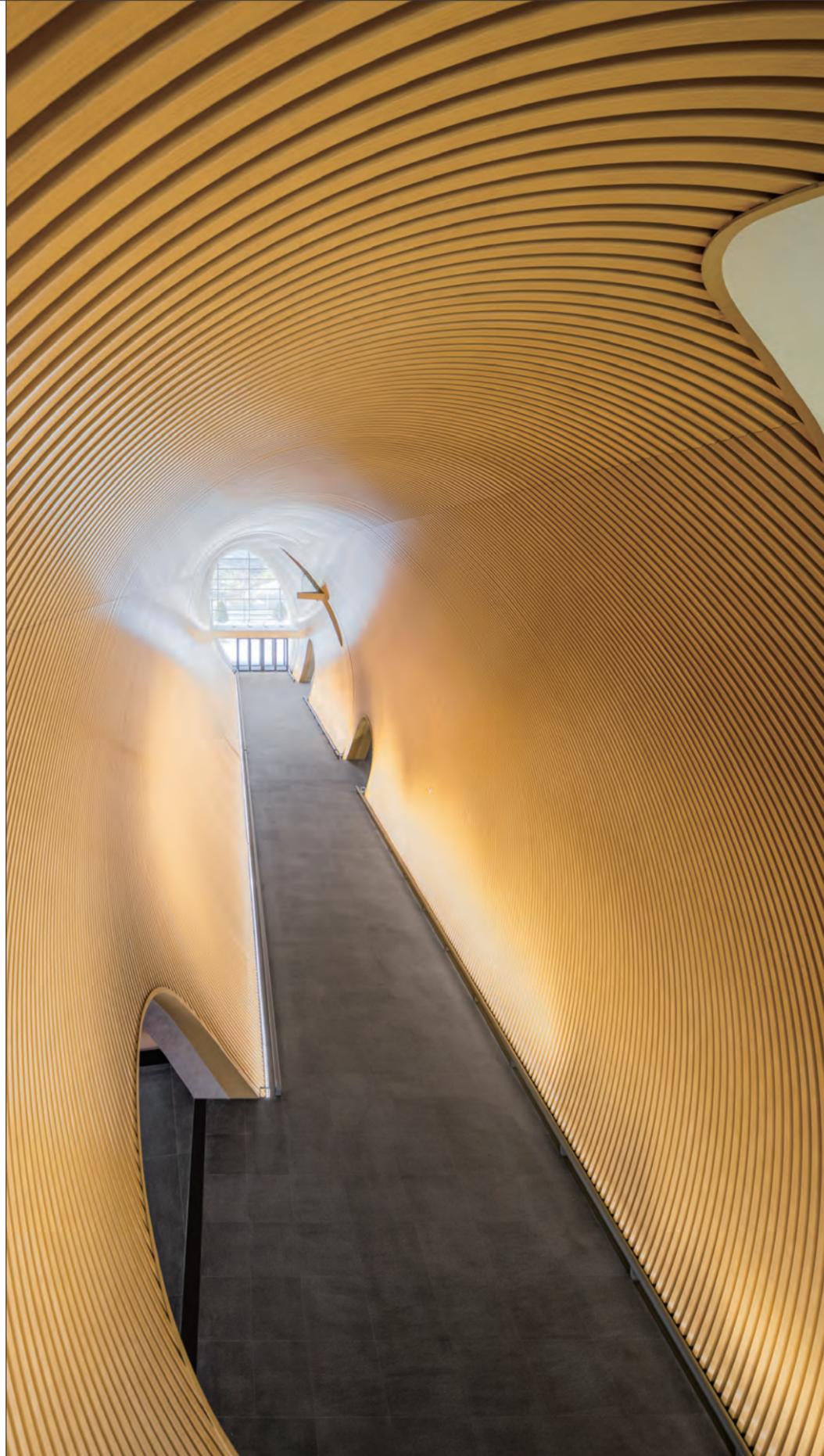
서울 및 수도권 공연장 지도가 확장하고 있다. 도심과 동남권에 쏠려 있던 공연장이 서남권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이다.

2022년 10월 문을 연 LG아트센터 서울이 대표적이다. 1,335석 대극장과 365석 블랙박스 극장을 갖춘 이곳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외곽에 해당하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선 대형 공연장이다. '강남 대표 공연장'이던 LG아트센터가 마곡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공연계 관심이 쏠렸다.

2000년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20년간 피나바우슈·이보 판 호버·매슈 본 등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현대 공연예술을 소개하며 국내 공연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켰다. 또한 공연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뮤지컬 산업화의 효시로 평가되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첫 라이선스 공연을 비롯해 다수의 뮤지컬을 선보이며 국내 공연시장의 외연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LG아트센터의 마곡지구 이전 소식에 공연계는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과 달리 마곡지구에서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LG아트센터 서울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LG아트센터 서울이 지난해 선보인 개관 페스티벌은 유료 매표율 82%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또한 올해 기획공연으로 파리오페라발레 30년 만의 내한공연, 배우 박해수와 유인촌 등이 출연한 연극 <파우스트> 등을 선보이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 또한 이곳이 서남권에서 자리 잡는 데 유효했다는 평가다.

LG아트센터 서울의 뒤를 이어, 또 하나의 대형 공연장이 서울 서남권에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제2세종문화회관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부지에 2,000석 규모의 대극장과 400석 규모의 소극장, 문화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 공연장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독일 함부르크 엘베강변에 위치한 공연장 엘필하모니Elbphilharmonie다. 옛 창고 건물 위에 철재 구조물을 올린 독특한 구조의 공연장인 엘필하모니는 2017년 개관 이후 엘베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또한 엘필하모니처럼 공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한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아니지만, 최근 개관한 부천아트센터도 주목된다. 부천아트센터는 1,445석의 콘서트홀과 304석의 블랙박스 극장을 갖춘 공연장이다. '지자체 최초 파이프 오르간이 설계된 클래식 음악 전용 특화 공연장'이라는 점을 내세운 부천아트센터는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LG아트센터 서울·제2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서남권에 새로운 공연 역세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계 숙원 중 하나인 서울 강북 지역의 클래식 음악 전용 홀 건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함께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재건축 계획에는 클래식 음악 전용 홀 건립이 포함돼 주목된다. 서울에서 대형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은 현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롯데콘서트홀 총 두 곳으로, 모두 동남권에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을 갖추게 되면 강북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공연시장은 지난해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이 발간한 '2022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연 티켓 판매액은 약 5,59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늘어났다. 새로운 공연장의 등장은 이러한 공연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공연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자리를 옮겨 새로 개관한 LG아트센터 서울 ©배지훈/LG아트센터

공연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더 많은 공연이 관객과 만나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공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새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연장 대부분이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예술의전당·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보면 일부 스타 연주자가 출연하는 공연 외에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또한 뮤지컬이 공연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을 내세워 새로 문을 여는 공연장이 관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공연장이 늘어나는 만큼 차별화된 기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객의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급에만 집중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라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공연계의 미래를 위해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영화제는 어떻게 칸의 상징이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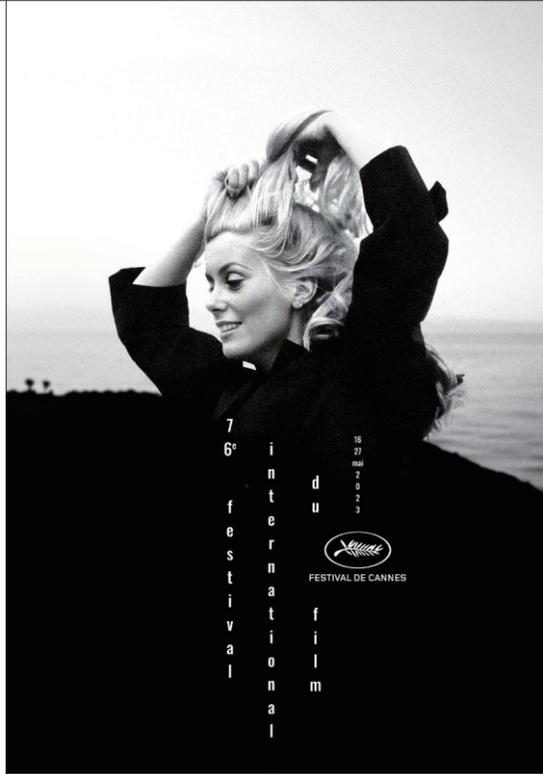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남프랑스 칸에서 제76회 칸 영화제 Festival de Cannes가 열렸다. 영화제 공식 경쟁작 21편, 주목할 만한 시선 19편, 경쟁 외 26편, 칸 클래식(고전) 22편 등을 비롯해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비평가 주간 24편, 감독 주간 31편 등 수많은 영화가 전용 극장 팔레 데 페스티벌 Palais des Festivals을 비롯한 칸의 영화관을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빼곡히 채웠다.

올해 영화제는 앰버 허드 Amber Heard와의 논란으로 수년을 칩거했던 조니 뎁 Johnny Depp의 복귀 무대이기도, 마틴 스코세이지 Martin Scorsese가 10년 만에 다시 리어나노 디캐프리오 Leonardo DiCaprio와 손잡은 신작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 Killers of the Flower Moon>의 최초 상영 무대이기도 했으며, 다큐멘터리 거장 왕방 Wang Bing이 5년간 봉제공장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며 촬영한 <유스 Youth (Spring)>가 베일을 벗은 곳이기도 하다.

저녁이면 칸의 거리는 턱시도와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또 이들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복장 규정이 엄격한 칸 영화제의 특색이다. 매일 밤 레드카펫은 해리슨 포드 Harrison Ford·케이트 블란쳇 Cate Blanchett·주드 로우 Jude Law 등 별들로 반짝였다.

여기서 묻는다. '프랑스 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러나 영화제를 제외한다면? 대개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칸은 영화제가 곧 도시고, 도시가 곧 영화제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전 세계에 축제 하나만으로 이토록 유명해진 도시가 있던가? 세계 3대 영화제 중 나머지 베를린과 베니스를 떠올려본다면, 두 곳 모두 영화제보다 도시 특유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칸=영화제'의 공식이 성립하는 이 위상은 대단히 독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칸은 어떻게 영화의 도시가 되었을까. 아니, 영화제는 어떻게 칸의 상징이 되었나.

← 바닷가 앞 허얏게 칠한 고급 호텔이 늘어난 풍경은 칸의 상징이 됐다 ©Hervé Fabre/Palais des Festivals et des Congrès Can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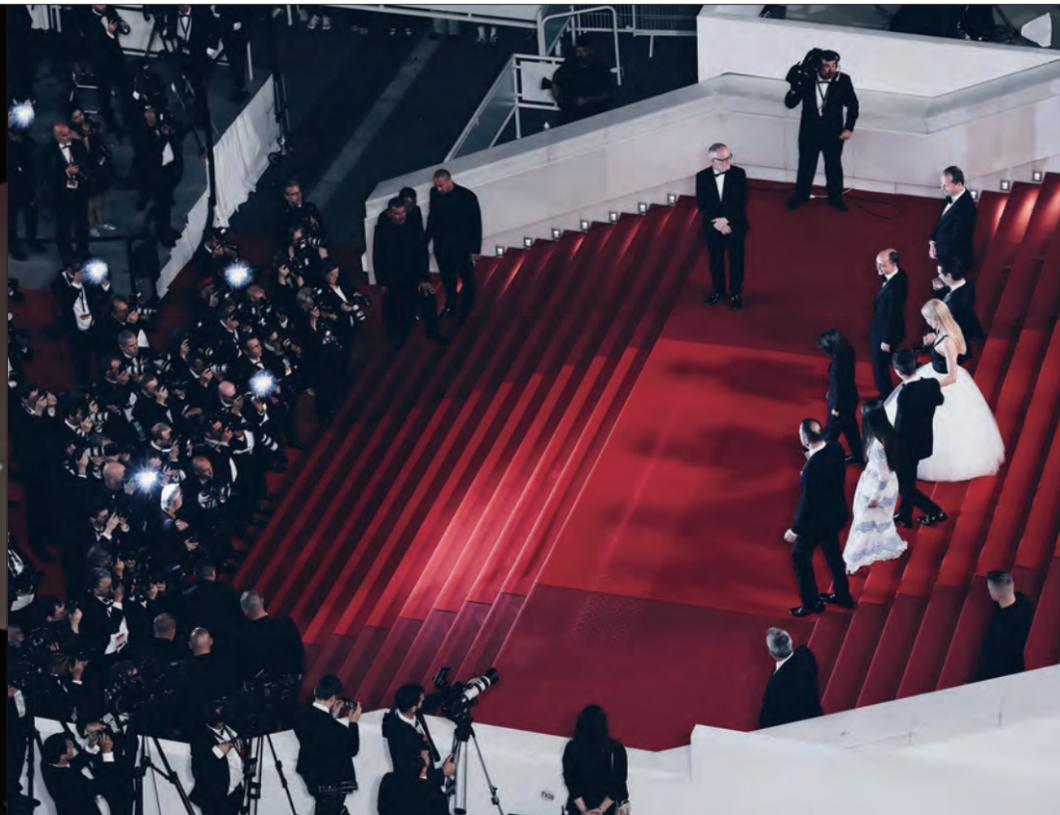
↑ 칸 영화제는 고전 영화를 초고화질로 복원 상영하는 칸 클래식 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터의 주인공은 알랭 카발리에의 <라 사미드>(1968) 속 카트린 드뇌브 ©Festival de Cannes

초호화 휴양을 위해 계획된 도시

칸은 원래 한적한 어촌이었다. 무성한 갈대밭에 어부들에게조차 인기가 없던 마을로, 이름도 갈대 Canne에서 왔을 정도니 짐작이 갈까. 배가 정박하기 어려워 무역도 발달하지 못했고 어부들도 해변이 아닌 언덕 위에 마을을 이뤄 살았다.

이러한 칸의 역사는 19세기, 한 사람으로 인해 바뀌었다. 전 영국 총리 브로엄 Henry Brougham 경이다. 19세기 중반, 겨울을 보내러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우연히 칸에 머물게 된 그는 이곳의 호젓함이 마음에 들어 별장을 짓고 매년 겨울마다 찾게 된다. 그를 따라 영국 귀족들이 하나둘 자리잡자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항구가 지어지고, 해변이 정돈됐다. 수요가 생기자 부동산업자들이 뛰어들었다. 러시아와 영국 등지의 왕족과 귀족들이 이탈리아 대신 남프랑스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칸은 본격적으로 '휴양지'라는 타이틀을 걸었다. 크루아제트 Croisette 해변을 따라 야자수가 식수되고, 귀족들의 투자로 카를통 Carlton·마제스틱 Majestic·마르티네즈 Martinez 등 하얀 페인트를 칠한 고급 호텔이 들어섰다.



← 칸 영화제는 감독과 배우뿐만 아니라 취재진에게도 철저한 드레스 코드를 요구한다 ©Festival de Cannes

흰색은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반사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금세 칸의 상징이 되었다. 짙짙마다 다른 색의 페인트를 선택해 알록달록한 주변 도시와 달리, 커다란 상업 호텔들이 같은 색으로 늘어선 칸은 독특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크고 안락한 호텔. 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럭셔리 휴양'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태어났다.

꾸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전략

도시의 운영 면에서 '휴양' 이미지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여름과 겨울 외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면 문화나 스포츠 등 사람을 끌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했다. 당시 급격히 향유 인구가 늘어나던 자동차나 영화 등이 매력적이었지만, 이미 모나코가 그랑프리1929-를, 베니스가 국제영화제1932-를 선점한 뒤였다. 그런데 1938년 베니스에서 사건이 터진다. 히틀러의 압력으로 나치 선전 영화가 심사위원의 만장일치 영화를 누르고 우승한 것이다. 프랑스·미국·영국 참가자들은 다시는 베니스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마음이 급했다. 다음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기 전에 그 타이틀을 프랑스로

가져와야 당위성을 갖고 새 영화제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터.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일부 정치인을 뒤로하고, 내무부 장관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럽 영화제'로서 프랑스만의 영화제를 시작할 것을 발표했다. 개최지는 베니스와 비슷한 느낌의 해안 도시 10곳이 경합했다. 결과는 대서양 연안의 비아리츠Biarritz로 낙점, 그러나 문화 산업이 절실했던 칸의 정치인과 호텔 대표들은 총력을 기울여 개최지를 칸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1939년 여름, 영화를 발명한 루이 뤼미에르Louis Lumière를 위원장으로 한 첫 영화제를 앞두고 미국에서 할리우드 스타들을 태운 정기선이 칸에 속속 도착했다. 그러나 축제가 시작되던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영화제는 무기한 연기됐다.

첫 영화제를 보류한 지 9년이 흐른 1946년 9월. 해변의 그랜드호텔에서 제1회 칸 영화제가 개최됐다. 초반은 축제가 자리잡기 위한 사교 행사 정도로 열렸다. 1959년 문화부 장관이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영화 선정위원이 된 뒤로 기존의 도제식 경로를 거치지 않은 신진 감독에게도 기회가 돌아갔다.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장 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 감독 등

↑ 5개 전문 상영관이 있는 팔레 데 페스티벌 내 드뷔시 극장에선 '주목할 만한 시선' 분야가 상영된다 ©전운해

전통을 거부한 누벨바그 작품이 칸 영화제를 중심으로 부흥했다.

이후 프랑스 68혁명을 기점으로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는 다양한 예술 영화를 올렸다. "영화의 질이 어떤 외교적 상황보다도 우선한다"는 창설 모토를 지키며. 1983년 공식 상영관인 팔레 데 페스티벌을 오픈한 뒤부터는 중국·호주·인도 등 비서구권 작품을 선정해 국가 폭을 넓혀나갔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은 2000년 임권택의 <춘향전>으로 처음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올해는 몽골·세네갈·튀니지 등 국가의 작품이 처음 경쟁 부문에 올랐다.

영화산업을 끌어오다

영화의 질만을 가리는 영화제는 감독이나 배우를 보기 위한 일화성 방문지에 그칠 수 있다. 지속해서 영화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산업'을 가져와야 했다. 칸이 도시로서 존속을 위해 영화제를 구상했다면, 영화제는 축제로서 존속을 위해 영화 산업을 기획했다.

앙드레 말로는 칸의 영화관에서 알음알음

이뤄지던 필름 구매를 1959년 공식 필름 마켓으로 승인하고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초대해 필름 마켓용 거래·상영 공간을 마련했다. 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기획한 것이다. 이는 베니스(2000년 개설)에는 없던 시스템으로, 칸 필름 마켓은 관계자들의 입을 타고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2000년에는 해변 모래사장을 따라 국가관Village International이 신설됐다. 나라별로 부스를 대어해 로케이션 홍보나 법률, 세금 문제 등 자국의 영화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안내한다. 영화를 기획하고 있거나 촬영지를 고민하는 창작자들은 부스를 둘러보며 쉽게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인터뷰나 행사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은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국관에서 한국 언론 간담회를 열었다.

칸 영화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곳곳에서 열리는 파티다. 공식 파트너인 쇼파드·BMW 등을 비롯해 각종 후원사가 해변과 호텔 곳곳에 자사 VIP 고객을 위한 파티를 마련한다. 영화제와 관계없는 회사도 칸을 찾는 유명인을 겨냥해 자체 행사를 주관하고, 초대받은 소수만 입장하거나 입장료가 어마어마한 자신

행사와 네트워킹 행사도 열린다. 에이즈 연구 재단인 amfAR의 이브닝 갈라나 불우 아동을 돕기 위한 글로벌 기프트 갈라 등이 그 예다.

그러니 칸 영화제는 영화의 경합장일 뿐 아니라 산업 종사자의 거래장, 창작자가 정보를 얻는 박람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언론과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홍보가 된다. 그리고 이슈는 늘 영화제가 사수하는 외부 이미지, 레드카펫과 드레스 코드라는 화려한 볼거리를 입고 증폭된다.

도시에 미치는 관광 문화적 파급력

칸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문화적인' 혜택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거의 없다. 평생 영화제가 열리는 팔레 데 페스티벌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시민이 태반이다. 매일 밤 무료로 상영하는 해변 극장 정도를 경험할 뿐. (이는 영화제 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축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탓이다.

칸 영화제는 오로지 영화인을 위한 자리로, 인증된 배지를 가진 사람만이 영화를 볼 수 있다. 배지마저 중요도에 따라 나누어 입장이나 행사 참석

등에 영향을 받는다. 명백히 계급적이다. 일반인이 배지를 받는 방법은 영화학도 인증인 시네필이나 26세 이하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3일권 정도인데, 이 역시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역 주민에게 할인 티켓이나 참여를 보장하는 다른 도시의 '지역 친화적 축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 지역 주민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결국 관광 수입이다. 칸의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6월부터 시작되는데, 칸 영화제로 하여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성수기를 3주가량 이상 앞당기는 셈이 된다. 올해도 영화제 기간 중 절반 이상 비가 왔다. 그럼에도 수효는 창출된다. 이는 날씨가 경제를 좌우하는 바닷가 휴양도시에서는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

영화제 기간 칸에 머무는 인구는 약 23만 명. 거주 인구 7만여 명의 3배가 넘는다. 그중 8만 명은 영화제를 위해 방문한 관광객, 4천 명은 언론인, 나머지는 영화산업 종사자 및 영화제 기간 각종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관계자들이다. 칸 영화제를 위해 직접 고용된 인력은 1천여 명에 달하며, 부가적으로 의전, 특수 운송, 케이터링 등 많은 럭셔리 투어리즘 산업이 파생된다.

칸 영화제는 근대 칸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첫 시도이자 성공적인 사례다. 이후 칸은 3월의 국제부동산박람회MIPIM, 6월의 국제광고제Canne Lions, 10월 영상콘텐츠박람회MIPCOM 등이 열리며 연중 손님을 맞는다. 이제 더 이상 휴양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문화컨벤션 도시로 자리잡은 것이다. 20세기 초의 계획대로.

칸 영화제는 종종 배타성으로 지적받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유지하는 덕에 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은다. 칸은 그 지점을 잘 알고 있다. 칸이라는 도시가 시대에 발맞춰 귀족 휴양지의 '이미지'를 계획한 것처럼, 영화제 역시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높은 장벽의 전문성과 그에 따르는 배타성을 고집한다. 최근 다른 영화제에 비해 칸 영화제의 위상이 더욱 독보적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전략은 유효한 듯싶다.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과화문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제4회
서울문화예술
포럼

일시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COLJURM

삶의 책장을 넘기며
2.5cm 세계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침묵의 화가 윤형근
동시대적 고전 읽기
고전을 고쳐 쓰는 소녀들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물입을 이끄는 '세계들'

2.5cm 세계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친구에게 손편지를 보낼 일이 있어 우체국에 갔다. 이것저것 넣은 터라 무게가 달라서 그에 따른 우표를 고를 생각에 신이 났는데, 아뿔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평소처럼 카드를 넣고 요금 결제를 마쳤다. 직원은 곧장 우표 자리에 큼지막한 바코드 라벨을 휘리릭 붙여 노란 박스에 넣었다. 아, 안 돼! 저건 우표가 아니라고요! 우체국을 나서는 내 발걸음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끈적하게 붙어 있었다.

“바코드 우표 말고 그림으로 된 우표가 아직도 나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마다 나와 다르기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자꾸만 깨닫는다. 내게 바코드 라벨은 우표가 아니며, 그림으로 된 우표만 우표이거늘. →7쪽

나와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 공감받기 어려울 것 같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반갑고 기쁜 책을 읽으며 깜짝 놀랐다. 실물 책을 보고서야 ‘헉, 맞아. 왜 이런 책이 없었지?’ 하고 깨닫게 되는 책이 있는데, 『이상하고 소란스러운 우표의 세계』2023(서은경 저, 현암사)도 그랬다. 내가 이는 한 우표 수집에 관한 국내 에세이는 이 책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흐릿하게나마 ‘우취인’(우표를 수집하고 학문적 취미로 두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사는 나이기에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혹시 현재 일반 우표의 모양과 값을 아시는가? 2021년 가을부터 통용되는 일반 우표는 큰 태극 문양 바탕에 훈민정음이 새겨진 430원짜리라고 한다. ‘라고 한다’를 쓰는 까닭은 나 또한 마지막으로 받은 실물 우표가 태극기가 그려진 330원짜리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까지 우표를 받아본 사람일 만큼, 우리는 우표로부터 멀어져 있다. 편지를 쓰지 않게 되자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만 쌓이게 되었고(이마저도 전자 고지서로 바뀌고 있다), 길가에 우체통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급기야 우체국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동네 우체국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곳까지 열심히 걸어가 무작정 기다리기를 여러 번, 우체국은 은행만큼이나 마음먹고 가야 하는 곳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속도와 빈도로 우체국 문턱을 넘나드는 이들이 있다. 우표 발행일(초일)에 맞춰서 우체국 앞에 줄을 서고, 그렇게 들어간 우체국 한 귀퉁이에서 우표와 함께 제작된 짝공 도장을 초일 엽서에 찍는다. 전국 팔도 우체국에

있는 관광인을 찍기 위한 여행 계획을 짜고, 서울에 들릴 일이 생기면 우표 발행일에 맞춰 서울중앙우체국으로 향한다. ‘택시멈 카드’라고 해서 우표, 엽서, 소인을 완벽히 갖춘 엽서 한 장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과 포스트크로싱(postcrossing)을 통해 예쁜 엽서와 우표를 주고받기도 한다. 우표 수집이라고 하면 어쩐지 어르신이 수그린 채 우표수집책을 살피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실제로는 상상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다. 이들은 조용하게, 누구보다 멀리 뻗어나가 적극적으로 날마다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 발 디딘 2.5cm 세계에서 다음 2.5cm 세계로 폴짝 뛰어넘으면서.

도장을 찍겠다고 우체국에 갈 때 가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취미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대답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53쪽

책은 간헐적 우취인인 내게 다채로운 지식을 알려주었다. 우표 전지(큰 한 장)에서 우표를 몇 장 쓰고 남은 부분을 기질 때엔 자연스럽게 여백 그림이 예쁜 쪽을 남기게 되는데, 그 여백의 이름은 ‘변지’이며 변지의 각종 요소를 고려해 모으는 우취인이 많다는 것. 현재 우체국에는 옛 우표를 동일한 액면가의 새 우표와 교환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우표 안에 소인이 동그랗게 온전히 찍힌 걸 ‘만월’이라 부른다는 것. ‘체인카드’ 놀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 주제의 우표를 릴레이식으로 모아 한 장의 엽서를 만든다는 것. 이런 이야기는 책이 아니었다면 영영 몰랐을 테다. 저자가 부려둔 지식과 수집 에피소드를 찬찬히 읽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애뜻함이 일었다. 누군가 다루지 않은 주제로 책을 낼 때의 큰 사명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주고 싶고, 내 설명이 혹시 틀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기본 용어를 설명하면서도 어려워 보이는 말에 행여 발도 안 들일까 봐 이런 거 몰라도 재밌다는 걸 누차 강조하고, 혹 관심이 생기거든 한 명이라도 더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 나 또한 『아무튼, 드림』2022(위고)을 쓸 때 같은 마음이었기에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예쁜 우표가 한국에서 아직 나오고 있고, 이렇게 예쁜 도장이 우체국에 나온다는

사실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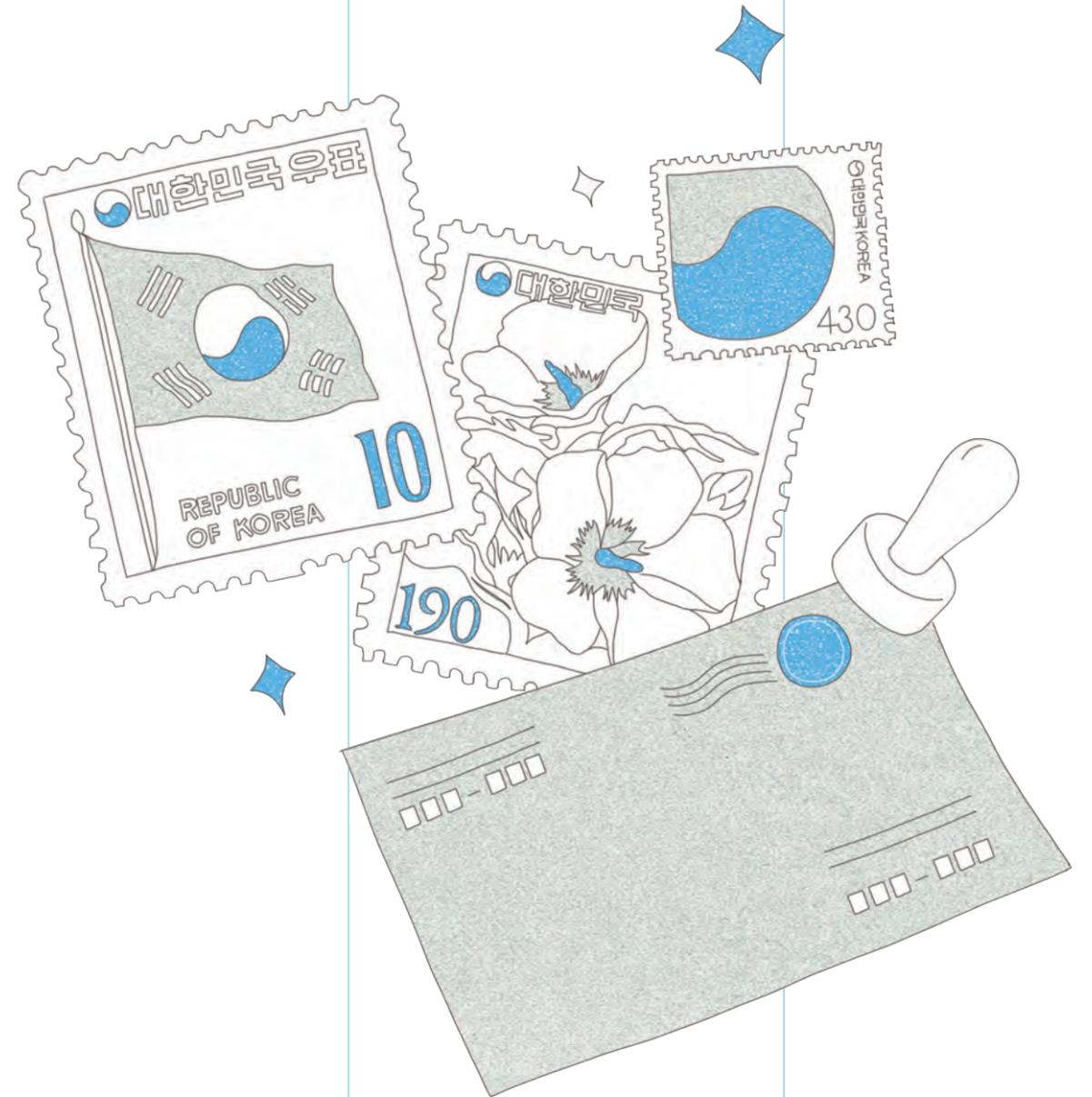
우취인의 세계는 굳건하지만, 다른 취미에 비하면 한 줌 인구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이런 책이 없을 거란 확신이 몹시 아쉬우면서도, 그러므로 이 한 권의 책이 오래도록 읽히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각자의 자리에서 곳곳하게 우표를 수집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운명의 친구 같을 테니까. 더 더워지기 전에 가보면 좋을 손편지 관련 장소를 몇 곳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어쩐지 이번 글은 독자들에게 예쁜 우표를 하나 붙여 편지를 부친 기분이다.

우표박물관
중구 소공로 70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주 월요일·공휴일 휴무

서울중앙우체국
중구 소공로 70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토·일요일 휴무

엽서 라이브러리 '포셋'
서대문구 증가로 18, 305호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무



침묵의 화가 윤형근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평생 진리에 살다가야 한다, 이거야. 플라톤의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인데, 진선미. 진실하다는 ‘진眞’자 하고 착할 ‘선善’자하고 아름다울 ‘미美’ 하고인데, 내 생각에는 진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RM ‘Yun’)

방탄소년단 RM이 지난해 발매한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는 윤형근1928-2007 화백의 육성으로 시작한다. RM은 윤 화백이 남긴 육성에 “그는 말했지 늘, 먼저 사람이 돼라/예술 할 생각 말고 놀아 느껴 희로애락”이라며 “사선을 오갔던 생과/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남긴 것들에게/나 역시 그저 좀 더 나은 어른이길”이라고 노래한다. 앨범 재킷 사진도 윤형근의 〈청색〉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후 공개된 RM의 집 침실에도 그의 작품이 걸려 있어 윤 화백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화백의 그림은 쉽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 누리끼리하고 어둡고 조용한 작품으로 ‘과연 이게 그림인가?’ 할 정도로 단순하다. 어렵게 보이는 그의 작품에 대해 RM은 “서양과 동양, 아시아와 한국 스타일의 완전한 조합”이라며, “가끔 피곤하거나 힘들 때 작품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다. RM의 미술 안목과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젠 ‘RM이 좋아하는 화가’로 더 유명해진 윤형근 화백은 미술계에서는 ‘침묵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대규모 전시를 연 이후 미술계에서 집중 조명됐다. 2019년 정부에서 이탈리아 베니스로 수출한 첫 국내 전시로도 기록됐다. 당시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와 맞물려 전 세계 미술인에게 ‘한국의 단색화’로 각인된 전시였고, RM은 바쁜 활동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전시를 관람해 화제가 됐다.

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왜 이렇게 어둡게 그린 것인지 좀처럼 알 수 없는 그림은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에서 그 배경이 공개됐다. 누렇게 변한 작가 노트와 일기가 처음 전시되면서 그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내 그림은 나의 똥이요 똥이요 얼굴이요 가슴이다. 화가 극도로 똥을 때 독한내 무엇이 십분 화면에 배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일기를 쓰듯이 그날그날 기록해보는 것이 내 그림이요 흔적이다.”(윤형근, 1984)

생전에도 말이 없는 작가였던 그의 삶은

그대로 한국 역사다. 점잖고 진중한 이미지와 달리 어두운 시대 울분과 서러움을 삭이며 삶을 살아냈다. 1928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6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참혹한 역사적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다. 파평윤씨 문정공파 대장손으로 아버지 윤용한은 경성고보 출신 지식인이지만 식민지 시기에 낙향해 서예와 사군자를 그린 문인화가였다. 어쩌면 금수저 출신이지만 식민지 탓에 군국주의를 경험하며 녹록지 않은 인생이 이어졌다. 1945년 청주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미원금융조합에 취직했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 사직서를 내고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 가출하듯 서울로 상경했다.

194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1회 학생으로 입학했지만, 미군정이 주도한 국대안 반대운동에 참가했다가 구류 조치 후 제적당한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에는 학창시절 시위 전력으로 보도연맹에 끌려가 학살당할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전쟁 중 미술동맹에서 스탈린·김일성 초상화 등을 그려 돈을 벌었고, 피란 가지 않고 서울에서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1956년 6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유신 체제가 한창이던 1973년 숙명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중앙정보부장의 지원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비리를 따져 물었다가, 레닌 모자를 쓴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세 번의 복역과 한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극도의 분노와 울분의 경험은 그를 화가로 이끌었다. 미술교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시작한 건 그의 나이 만 45세였다.

그의 그림은 참고 건너온 삶처럼 묵직하다. 형상을 절제한 채 짙은 청색과 다갈색을 기조로 수평 혹은 수직의 획만을 허용한 작업은 무겁고 조용하지만 묘하게 현대적이다. 면포나 마포 그대로의 표면 위에 하늘을 뜻하는 청색과 땅의 색인 암갈색을 섞어 만든 오묘한 검정을 큰 붓으로 푹 짙어 내려 그은 것들이다. 누리끼리하고 검은 화면의 그림을 작가는 스스로 ‘천지문天地門’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블루blue는 하늘이요 엄버umber는 땅의 빛깔이다. 그래서 천지라 했고 내 그림의 구도는 문이다”라고 했다. 처음부터 어두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의 스승이자 장인인 수학 김환기1913-1974의 영향을 받아 밝은 색채를 사용했다. 작업이 변한 건 1973년, 반공법 위반의 누명을 쓰고 서대문형무소를 다녀온 후 색채를 잃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화가’ 김환기와 윤형근은 특별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윤형근이 처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간 날 시험감독관이 김환기였다. 그 후 윤형근이 서울대에서 제적당하고 홍익대학교로 편입할 때도 홍대 교수였던 김환기가 그를 이끌었다. 1960년 윤형근이 김환기의 장녀 김영숙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장인-사위의 관계가 되었다.

윤형근은 김환기를 넘고 싶었다. 김환기의 그림이 밝고 서정적이면서 세련됐다면, 그의

작품은 한결같이 수직으로 가른 검은 기둥이 곳곳한 추상 작품이다. 윤형근은 생전 “내 그림은 잔소리를 싹 뺀 외마디를 그린다”고 했다. “화폭 양쪽에 굵은 막대기처럼 죽 내려 굽는다. 물감과 널찍한 붓 그리고 기름, 면포나 마포만이 내 작품의 소재다.” 누렇게 검은 그림은 천조차도 평범한 마포나 면포일 뿐이다. 불투명한 백색 도료를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표면에 쓸쩍 발랐다. 후기 작품은 한층 더 간결해져 색채는 미묘한 차이가 제거된 순수한 검은색으로 변했다.

미니멀한 조형미와 순수예술성이 극진한 작품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2017년 세계

최정상급 갤러리인 뉴욕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 갤러리에서 연 개인전에서 완판된 데 이어 올해 파리에서 열린 데이비드 즈위너 새해 첫 전시도 대박이 터졌다. 아트페어도 아닌 개인전 개막식에 1천여 명이 방문해 이례적이라는 호평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 그의 100호 작품은 현재 미술시장에서 4~5억 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윤형근은 그의 장인 김환기 화백의 죽음에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고, 허무할소다”라고 일기를 썼는데, 그도 79세인 2007년 12월 28일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전을 고쳐 쓰는 소녀들

전영지 드라마터그·공연칼럼니스트

무대 위 소녀들은 사랑을 꿈꾸곤 했다. 마치 ‘건실한 자궁’이 되는 것이 유일한 장래 희망인 듯, 소년들과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만 수줍게 노래했다. 그녀들의 꿈은 이미 이처럼 아주 빈곤했으나, 비극적 무대는 이조차 기어코 짓밟아 그녀들은 자살하거나, 강간 당하거나, 강간 당한 후 자살했다. 옛 남성 작가들이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당최 재능이 없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터, 훈련된 독자·관객이라면 작가의 편협한 상상력은 잠시 괄호 치고 나머지를 즐기는 일에 능숙할지도 모르겠다.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나 또한 훈련이 적지 않아 무딘 마음으로 무대를 대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나,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작되어 관객을 찾을 때조차 전혀 달라지지 않는 소녀들의 협소한 관심사와 속절없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지없이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곤 한다. 이를테면, 프랑크 베데킨트Frank Wedekind의 『눈뜨는 봄』1890-91이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Spring Awakening〉(오프 브로드웨이2006, 한국 초연2009)으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ía Lorca의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1936이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Bernarda Alba>(오프 브로드웨이2006, 한국 초연2018)로 다시 찾아왔을 때가 그런 순간이었다.

동의할 수 없는 요소들이 선연한 '수작'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잡아당겨진다. 전통적인 뮤지컬 어법을 사뭇히 위반하며 혁신적인 무대언어로 청소년의 사랑과 욕망과 분노를 분출하는 <스프링 어웨이크닝>. '고루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예기치 않은 동요'라는 평을 받기도 한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슬프고 역동적인 작품에서도, 소녀들은 참으로 '고루한' 인생을 산다.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문학을 읽고 죽음에 관해 토론하는 사이, 소녀들은 오직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에

하염없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녀 중 하나였던 벤들라는 예상치 못한 임신 끝에 원치 않은 중절수술 도중 죽음을 맞는다. 뮤지컬 창작자들은—출판된 희곡 서문에—원작의 멜키어와 벤들라의 관계가 마치 '데이트-강간'처럼 보여 둘 사이의 사랑이 쌓여나가도록 장면을 재배치하고 벤들라가 사랑을 스스로 감각하고 노래하도록 가사를 추가했다고 말하나, 벤들라의 운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베르나르다 알바>의 경우는 더욱 씩씩하다. 이 작품이 2018년 우란문화재단에서 놀라운 역량을 지닌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배우들에 의해 '올-여배극all-female cast'으로 무대화되었을 때, 관객들은 환호했다. 공연의

환희가 채 가지지 않은 극장에서 커튼콜 동안 배우와 관객이 함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애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던 퇴근길에 대한 기억 또한 생생하다. 이야기 때문이다. 고작 '동네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는 한 사내를 두고 세 자매가 갈등하다 결국 그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작의 고루한 서사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지워내는 세계 속에서 그저 사랑에 매달렸던 소녀들의 이야기와,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던 여성 배우들의 역능과 존재감이 부딪혀, 그 순간을 설명할 언어를 찾을 수 없었다.

2023년 봄, 국립창극단이 웹툰

<정년이>(서이레 글·나문 그림)를 각색해 다시 여성국극을 소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같은 이유로 만감이 교차했다. 여성국극은 창무극唱舞劇의 일종으로, 1948년 국악계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 문화에 대한 여성 국악인들의 도전으로 시작해 6.25전쟁을 전후로 인기 힘들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여성 연희자 중심의 공연예술 장르다. 다시 말해, 여성국극은 여성 배우가 모든 배역을 연기하고 소리하고 춤추는, 즉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 배우들의 무대에서, 특유의 비규범적이고 젠더 전복적인 매혹으로 국극 공연이 거의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많은 연구자와 예술가의 주목을 받아왔다. 여성국극의 남역 배우들은 <정년이> 속 대사처럼, "남자됨과 여자됨이 [얼마나] 가소로운지"를 웅변하며, "세상의 역할극을 망치는" 유쾌한 놀이를 상상케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 경쾌한 상상을 주저앉히는 것은 또다시—주로 남성 작가들에 의해 구축된—서사였다. 여성국극 레퍼토리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신파 로맨스극으로—이 또한 <정년이> 속 대사가 명쾌하게 짚어내듯—"맨날 공주는 잡혀가고 왕자는 구해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창극 <정년이> 또한 극을 여는 소리 '이 시대의 왕자들이 온다'를 통해 국극단을 "왕자가 사라진 시대의 왕자"라고 소개하며, 여성국극에서 최고의 배우에게 허락되는 왕자 역할을 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정년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여성국극의 대표 레퍼토리인 <춘향전>, <자명고>와 함께 새로 창작된 <쌍탑전설>이 극중극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여성국극의 서사가 가부장제 세계관 안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정년이>는 과거에 공연되던 여성국극의 이야기를 단순히 되풀이하지 않는다. 관객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이 작품들의 배역이 아니라 '배우'다. 춘향과 몽룡, 아사녀와

아사달,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아니라, 윤정년·허영서·권부용·백도영·박초록·홍주란 등이 관객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인물들이었다. 노력하고 경쟁하고 연대하는 이 소녀들은 춘향·아사녀·낙랑공주와는 다른 꿈을 꾸며, 관객 또한 소녀들의 다른 삶을 상상하게 한다. 아무리 납작한 서사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배우는 자신의 역능과 주체성을 통해 서사를 배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전복을 감각하는 관객은 극의 서사와는 다른 서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음을, <정년이>는 이처럼 여러 층위를 통해 입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국극의 팬들이 남역 배우의 '이상적 남성' 연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자부심을 발견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말이다.

<정년이>는 이렇게 여성국극을 이어 쓴다. 그 위에 다른 이야기를 덧입혀 다시 쓴다. 옛이야기는 그저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전을 다시 쓰는 까닭은 고쳐 쓰지 않고는, 덮어 쓰지 않고는 그 이야기들이 스스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년이>는 모든 소녀가 왕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왕자가 소년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모습도 아닐 거라고, <정년이> 속 소녀들처럼 별나고 다른 꿈을 마음에 품은 소녀들에게 말한다. 다른 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고전이 오래도록 소녀들에게 전하는 데 실패한 말이 아니던가. 나에게 이 말은 성년이 비성년에게 전해야 하는 유일한 전언傳言 같아 어떤 고전 작품들은 기필코 전복되기를, 그리고 꼭 고쳐 쓰여 다시 찾아오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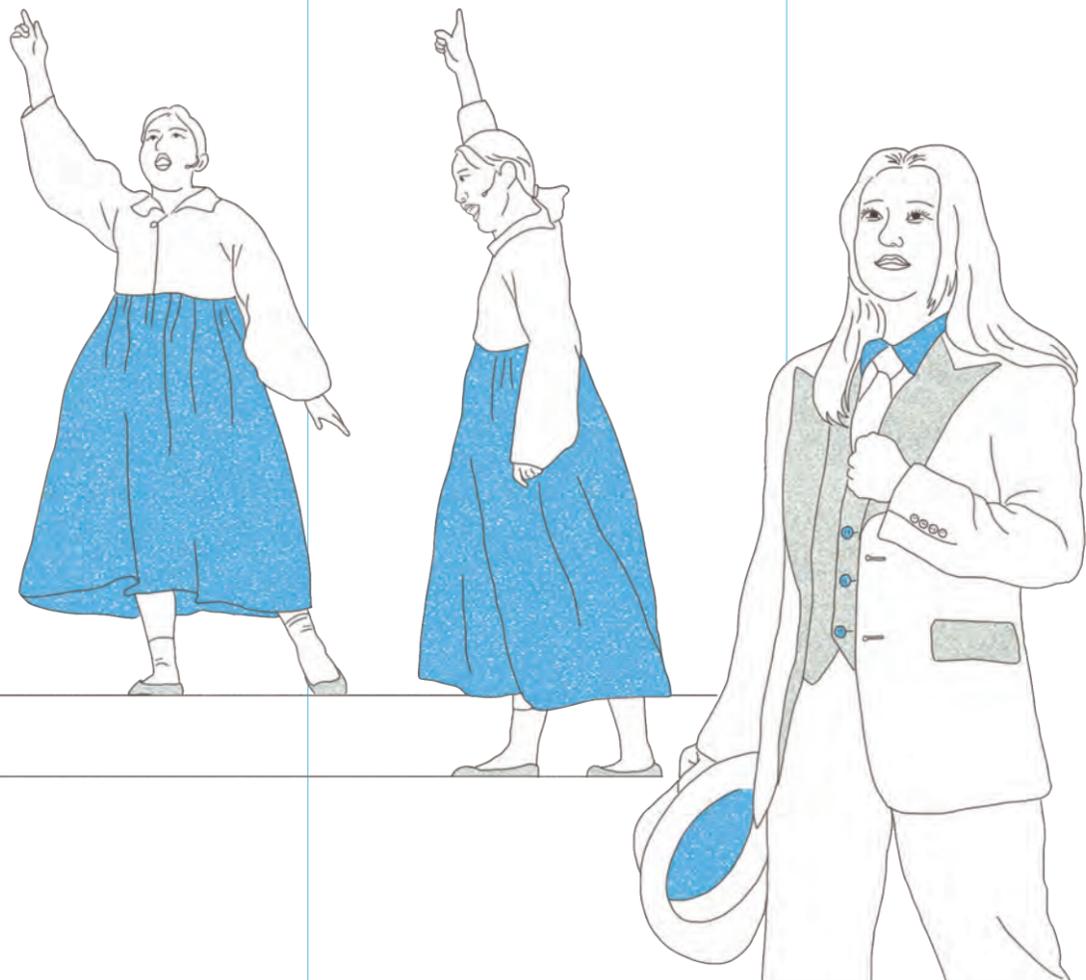
몰입을 이끄는 '세계들'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지금의 우리는 늘 어딘가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새로 만난 큐레이터가 그렇게 말했다. 온갖 화려한 것들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누군가는 마약에 취하고... 그러다 피곤해지면 벽난로 이미지나 몇 시간 연속 재생 명상음악 같은 콘텐츠를 틀어놓고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지만, 그마저도 비움이 아닌 쾌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시끄러운 카페에 앉아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한 시간이 넘도록 떠들었다.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오르니 갑작스러운 고요함과 함께 약간의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언제부터인지 정말로 가만히 있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과



조금 전 화면으로 본 무의미한 이미지의 조각들이 뒤섞여 눈을 감아도 눈앞에 뭔가가 보이는 기분이다.

“그곳은 골수까지 탐미적이었다. 모든 것은 반짝거리도록 강요당했다. 말러는 이런 사치스럽고 애매모호한 순간에 최고의 음악적 표현을 부여했다. 그는 이 도시의 표면 뒤에 숨어 있는 균열이 곧 터져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회를 변형시키는 예술의 힘을 여전히 믿었다.”(알렉스 로스 저, 『나머지는 소음이다』, 21세기북스, 39~40쪽)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도Adagio를 근래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며 마음을 잠깐 내어주기에 너무나 훌륭한 대상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12분도, 7분도 될 수 있는 이 곡은 하프와 현악기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아름다움의 극치, 슬픔의 극한을 들려주는데, 일상의 풍경이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새로운 감정적 동요가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유의미한 도취. 마음에 강렬한 파도를 만들고 그 여운이 아무런 쓴맛도 남기지 않는,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경험이란 정말이지 찾아보기 어렵다. 산이나 바다 앞에서 혹은 뛰어난 미술 작품을 마주했을 때 정도가 있으려나.

이 곡은 최근 영화 <타르TAR>2023와 <헤어질 결심>2022에 등장했다. <타르>의 주인공 리디아 타르,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서래와 해준 모두 우아하게 취해 있는 인물이다.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이 연기한 리디아 타르는 걸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도취해 있다. 말러에, 권력에. 무엇보다 말러와 권력을 양손에 쥔 자기 자신에. 영화 초반의 인터뷰 장면에서 타르는 지휘자란 시간을 다루는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주지한다. 자신의 스승인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에서 12분에 걸쳐 말러의 아다지에도를 연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화 <타르>의 말러 5번 4악장 리허설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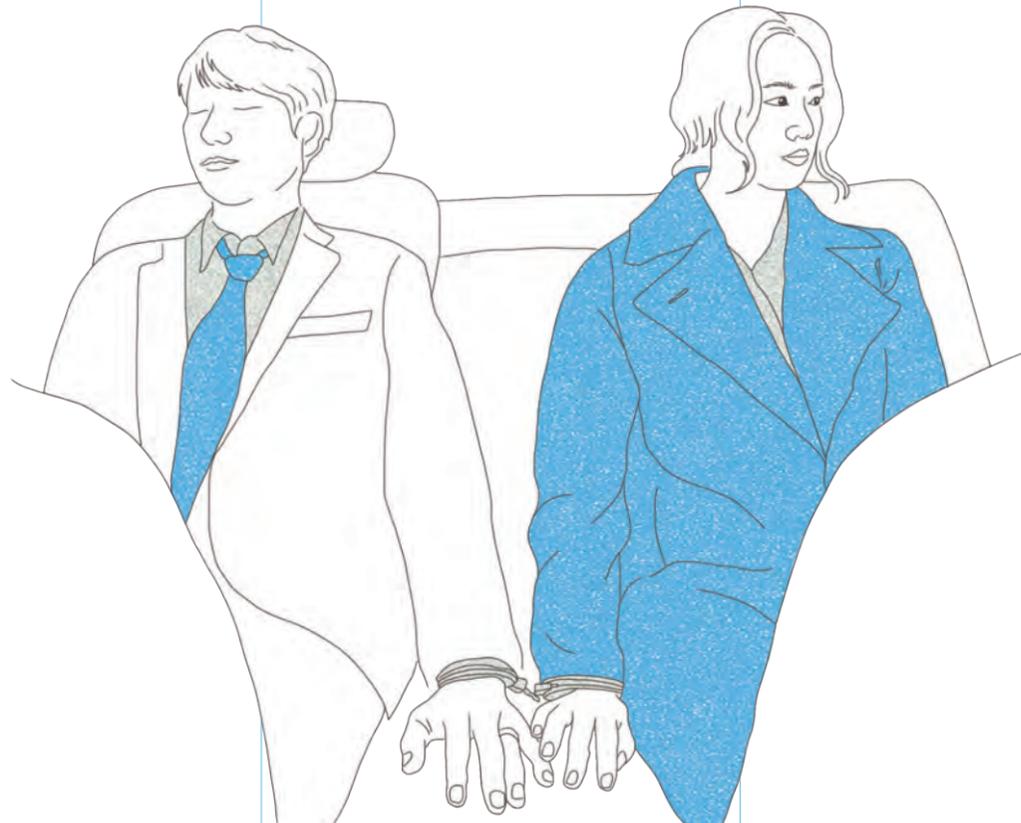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지휘 베를린 필의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이 곡의 온전한 감상을 원한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Bernard Haitink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아다지에도(Philips)는 무려 14분에 이르는 연주라 가장 느린 기록을 보유한다. 쾰른에서 말러가 지휘하는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Gürzenich Orchester Köln의 초연 무대를 직접 보았던 빌럼

자신은 7분 길이로 표현할 것임을 밝히기도 한다. 죽음이 아닌 사랑을 묘사하며.

타르는 음악에 취한 뛰어난 예술가지만 그 위대한 음악과 자신을 동일시한 나머지 천천히 추락하고 만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내뿜은 '사랑'이란 황홀하거나 아름답지 않고 권력에 의해 찌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진다. 영화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의 예상과 영화의 관습을 뒤엎고 또 뒤엎는다. 타르는 결코 선인이 아니지만 그 인물에게 몰입하면 그의 마음속 깊숙한 슬픔, 혼란스러움에도 공감할 수 있다. 타르는 마치 안갯속 같은 아다지에도 안에서 길을 잃는다. 그러나 아마도 다시 스코어를 넘겨가며 박자를 새어가며 길을 찾을 것이다. 타르는 그런 인물이다.

영화는 부제처럼 내건 말러 5번 중 어느 한 곡도 제대로 들려주지는 않지만,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타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에서 아다지에도 악장의 리허설 신을 다시 들을 수 있다. 타르는 단원들을 향해 “이렇게 단조로워서 안 된다. 더 혼란스러워야 하고 압박감이 느껴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가슴이 터져라 노래하는 것처럼.” 그 열정의 주문이 리허설 연주와 함께 하나의 트랙으로 남았다. 극 중에서 타르가 클라уди오 아바도를 따라 맞춘 파란색 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표지에 담겼다. 이쯤 되니 타르가 꼭 실존하는 음악가처럼 느껴진다.



멩겔베르흐Josef Willem Mengelberg와 브루노 발터Bruno Walter는 각각 7분 남짓으로 해석했고, 말러 작품으로 수많은 명연을 남긴 레너드 번스타인과 빈 필하모닉의 1987년 연주(DG)가 오랫동안 회자한다.

<헤어질 결심>에는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아다지에도가 흐른다. 해준이 서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달리는 차 뒷자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포개 장면에서 두 번 등장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름답게 취한 사랑의 주인공들이다. 그 과정에 살인이나 폭력, 외도 등이 난무하지만 이미 두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한 관객에게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명훈 지휘 서울시향의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서래와 해준의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이 말러의 이 곡과 잘 어우러진다. 서래는 사랑을 확신한 채 애를 쓰다 끝내 해준의 미결 사건으로 남기로 한다. 해준은 사랑을 부정하다 마지막 순간 어떻게든 사랑을 이루어보려 발버둥친다. 아름답지만도 슬프지만도 않은 찬란하고 처연한 삶의 어느 순간을 <헤어질 결심>은, 그리고 말러의 5번 4악장은 들려준다.

실제로 말러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는 알마 신들러Alma Schindler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동시에 병세가 악화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한 상태였다. 이러한 작곡 배경 그리고 아다지에도(아다지오보다 조금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라는 부제, 매우 느리게sehr



사이먼 래벨 지휘 베를린 필의 말러 교향곡 9번 4악장

langsam라는 악보 첫머리의 지시어가 음악가마다 다른 해석을 낳게 한 것이다. 말러의 이 곡이 장송곡처럼 들려도, 혹은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처럼 들려도 어느 쪽도 맞거나 틀린 게 아니다. 말러가 자신의 복잡한 심상으로부터 지어 올린 이 서사로부터 우리는 느끼고 싶은 걸 그대로 느끼면 된다. 자유는 듣는 이에게 있다.

아다지에도 외에도 말러 교향곡의 느린 악장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세계를 이룬다. 고통이 깃든 천상의 세계를 그린 4번 3악장, 죽음을 향한 정화된 두려움을 묘사한 9번 4악장 같은 고차원의 몰입을 이끄는 세계들이 있다. 말러는 백 년 후 사람들이 일상의 어지럼증을 잊기 위해 자신의 음악을 재생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MENTS

이달의 Focus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곧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인데요.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예술을 어릴 때부터 곁에 두게 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사를 읽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꾸준히 서울문화재단 프로그램을 [문화+서울]을 눈여겨보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짜보고자 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편집팀에 전하는 한마디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지금처럼 양질의 콘텐츠를 가득 담아주시면 행복한 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장혜선 님

EPILOGUE

보고 싶은 공연과 전시, 가고 싶은 축제가 너무 많은 6월이다. 그리고 내겐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운동... 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주말이 너무 짧고 시간은 늘 부족하다. 이번 6월호는 짧은 소식부터 깊이 있는 인터뷰까지 궁금했던 아티스트와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이 소개됐다. 뭘 볼지 어딜 갈지 선택지가 많은 것은 아주 행복한 고민이니까! 이번엔 꼭 놓치지 말고 잘 챙겨봐야겠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SPECIAL THANKS TO

#1. 지난해처럼 굵직한 수상 소식은 없지만, 마감일에 맞춰 따끈한 칸 영화제 소식이 [문화+서울] 편집팀에 도착했다. 작은 주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나누는 멋진 필자 윤혜 씨에게 사랑과 감사를. 그가 기자회견장 옆에서 세 시간을 기다려 눈빛 교환한 디캐프리오의 순간을 아쉬운 대로 이곳에나마 남겨본다.

#2. 익히 알려진 것과 달라 생경하다는 술한 향의(?)에도 불구하고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 10년째 웬만하면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일 년에도 몇 번씩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사이 많은 변화가 이뤄졌고, 통신문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도 꽤 국립국어원 한국어어문 규범에 의거해 표기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 배우 Leonardo Wilhelm DiCaprio의 영어 표기법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벨기에 앤트워프 태생 연출가 Ivo van Hove의 네덜란드어 표기법은 이보 판 호버로 기재함을 밝힌다.

김태희 디자인이케에디터



EPILOGUE

역동적이고 시원시원한 비보이 사진에 절로 몸이 들썩였다. 재단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사업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작년처럼 파란 하늘 아래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기원하며.

전민정 편집위원

POSTSCRIPT

월간지 담당자의 특권은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의 나와는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결국 모든 건 사람 사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로 지칭하며 내심 타자화했던 태도를 거두고 그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도드라진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니,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담소의 모양을 한 인생 수업일 때가 많다. 나에게 우연히 주어진 이 특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감사함을 곱씹을 줄 아는 담당자이고 싶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와 사람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된다.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앙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께는 [문화+서울]을 일 년간 보내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2023 쿼드초이스

2023
QUAD
다호이코드
5.19-10.9



안수영 안성수 박호빈
서도와 은미
무토 X 입과손 스튜디오
김우옥 신유청

